양 기 훈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슈베르트와 슈만의 「미뇽의 노래」 비교 연구 및 연주법 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성 이 진

슈베르트와 슈만의 「미뇽의 노래」
비교 연구 및 연주법 연구

양 기 훈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성 이 진

인 준 서

성이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

심사위원_____ ㊞

심사위원_____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슈베르트와 슈만의 「미뇽의 노래」 비교 연구 및 연주법 연구

성 이 진

논 문 개 요

「미뇽의 노래」는 Goethe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에 등장하는 미뇽이 부르는 네 편의 시로써 1편 ＜Kennst du das Land＞, 2편 ＜Nur wer die Sehnsucht Kennt＞, 3편＜Heiß mich nicht reden＞, 4편 ＜So lasst mich Scheine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슈베르트와 슈만을 비롯한 수많은 작곡가들에게 작곡의 대상이 된 시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예술 가곡의 전형을 이룬 낭만초기의 슈베르트와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 낭만시대 절정에 이른 슈만의 「미뇽의 노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성악곡이 기악곡과 구별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가사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 선택한 가사에 따라서 똑같은 가사라 할지라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음악적 표현에는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런 점에서 같은 시에 붙인 다른 작곡가의 곡을 비교 연구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특히 괴테의 시는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의 생애와 음악관을 통해 그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시의 배경이 되는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의 줄거리와 작품배경, 그리고 이 소설이 문학사조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소설 속의 미뇽의 성격을 알아봄으로써 시의 이해를 돕고 음악의 표현방법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음악에 있어서는 각 작곡가의 가곡의 일반적 특징을 먼저 알아본 후, 각 작품에서 표현된 형식, 화성, 선율과 리듬, 악상, 반주법을 분석함과 동시에 연주상의 주의 점을 연구해 봄으로써 실제적인 연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방법 ····· 1

Ⅱ. 본론 ····· 2

1. 시인 ····· 2

1) 괴테의 생애 ····· 2

2) 괴테의 음악관 ····· 3

2. 작곡가 ····· 5

1) 슈베르트가곡의 일반적 특징 ····· 5

2) 슈만가곡의 일반적 특징 ····· 7

3. 소설「빌헬름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대하여 ····· 9

1) 문학적 가치 ····· 9

2) 줄거리 ····· 11

3) 미뇽의 인물 분석 ····· 16

4.시 해석 및 작품 배경 ····· 18

1) Kennst du das Land (당신은 아시나요) ····· 81

2) Nur wer die Sehnsucht kennt(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 02

3) Heiß mich nicht reden(말하라 하지 마세요) ····· 12
4) So laßt mich scheinen(이 모습 이대로 둬요) ····· 22
5. 작품 분석 및 연주상의 유의점 ····· 24
1) 슈베르트 ····· 24
① Kennst du das Land (Nachlaß, Lfg. 20) ····· 42
② Nur wer die Sehnsucht kennt Op. 62, No.4 ····· 03
③ Heiß mich nicht reden Op. 62, No.2 ····· 33
④ So laßt mich scheinen Op. 62, No.3 ····· 53
2) 슈만 ····· 38
① Kennst du das Land Op. 98a, No.1 ····· 83
② Nur wer die Sehnsucht kennt Op. 98a, No.3 ····· 24
③ Heiß mich nicht reden Op. 98a, No.5 ····· 46
④ So laßt mich scheinen Op. 98a, No.9 ····· 49

Ⅲ. 결론 ····· 52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슈베르트와 슈만은 독일 예술가곡을 절정에 올려놓은 작곡가이다.

19세기의 음악적 경향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장르 중의 하나가 바로 예술가곡으로서, 이 시기에 음악과 시는 새롭고 친밀한 결합을 성취한다.

특히 슈베르트는 새로운 예술가곡의 길을 열었으며 슈만은 깊은 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시에 대한 이해와 해석, 말과 억양의 처리, 반주부의 역할 확대 등의 공을 세웠다.

이같이 당대의 뛰어난 두 작곡가가 같은 시를 어떻게 달리 표현했는지를 연구하여 각 작곡가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며 오늘날 이 곡을 연주하려는 연주자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 방법

우선 시의 배경이 된 소설의 내용과 작가 괴테의 생애와 음악관을 알아봄으로써 음악이전 문학작품으로써의 시의 의의와 내용을 연구한다.

각 작곡가의 일반적인 작품 경향을 알아보고 각 작품의 형식과 화성, 선율, 반주, 악상 등을 비교하면서 시의 내용과 음악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연결 시켰는지 알아본다.

또한 직접 연주를 해 봄으로써 구체적인 연주법을 연구한다.

Ⅱ. 본 론

1. 시인

1) 괴테의 생애

단테, 세익스피어와 더불어 3대 시성으로 불리는 괴테는 174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엄격한 아버지와 활달하고 지적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부유한 상류가정의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

괴테의 창작활동은 문학사조에 의해 흔히 첫째, 질풍노도(Sturm und Drang)의 시기, 둘째, 고전주의 시대(Classicism), 셋째 만년 낭만주의 시대(Romanticism)로 나누어진다.

질풍노도란 자연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감정과 개성을 존중한 문학사조를 일컫는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1774)과 역사극 「Goethe von Werlihingen」이 이 시기의 작품이며 이를 통해 그의 이름이 전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역시 이 시기에 구상된 작품으로 부는 축적했으나 권력이 없었던 당시의 시민계급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괴테를 고전주의로 전향케 한 이탈리아 여행과 프랑스 대혁명 이후 개작되었다.

독일의 고전주의는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1786~1788)을 통해서 탄생했다고 흔히 일컬어지는데 이 시기의 주요 작품으로는 「타우리스섬의 이피게니」

(Iphigenie auf Tauris, 1787), 「에그몬트」(Egmont, 1787)가 있다.

1794년 시작된 쉴러와의 깊은 우정을 통해서 「파우스트」의 재착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 1796), 서사시「헤르만과 도로테아」(Hermann und Dorthea, 1797)등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때 독일의 고전주의가 확립되었다.

만년에는 광학(光學)연구의 결정인 「색채론」(Zur Farbenlehre, 1810),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Wilhelm Meisters Wanderjahre, 1829)와 「파우스트」(Faust, 1831)등의 걸작을 남기고 자서전 「시와 진실」이 완성될 무렵인 1832년 3월, 83세를 일기로 사망한다.

그의 종교관은 범신론(凡神論)적 이었지만, 복음서의 깊은 윤리관을 중시했고, 혁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인류의 진보와 행복에 대해서는 정열을 다한, 사랑의 시인인 동시에 양심을 가지고 시대에 대한 책임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고뇌를 인류의 고뇌로 차원을 높이며 휴머니즘의 기반을 마련하여 후대의 여러 문학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지상최대의 작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괴테의 음악관

괴테는 음악을 가리켜 〃가장 아름다운 신의 계시가 온전히 충만된 것(die ganze Fulle der schonsten Offenbarung Gottes)〃이라고 하면서, 〃예술적 가치는 음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음악은 이리저리 따질 아무런 재료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음악은 완전한 형식과 내용이며, 그가 나타내는 모든 것을 높이고 고상하게 만든다.〃라고 평가했다.[1] 아울러 괴

1) 로맹롤랑, 괴테와 베토벤, 박영구 역 (서울 : 웅진닷컴, 2000), p. 7

테는 음악을 가리켜,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 듯이 음악은 모든 시가 흘러나오고 흘러들어 가는 진정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자연의 근본이념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강조하여 성스러운 교회 음악이나 민요풍의 노래를 선호하였다.

그의 이러한 음악관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의 주인공 빌헬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 「감성으로써 마음과 정신을 동시에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곡을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악기는 단지 목소리를 위해 반주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의미가 따라붙지 않는 선율과 악절과 경과구는 내가 보기에는 마치 우리의 눈앞에서 공중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홱 낚아채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알록달록한 새들과도 같을 뿐인데 반하여, 노래란 마치 천재와도 같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르면서, 우리 내부에 깃들여 있는 보다 나은 자아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같이 날아오르도록 자극을 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요.」(1권 11장, 하프타는 노인에게 노래를 청하는 장면)[2]

그가 음악에 깊은 영향을 미친것처럼 그 자신의 작품 역시 음악에 대해 깊이 영향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그것이 길이가 긴 Faust(12,000행)이건 짧은 유절 노래이건 간에 음악과의 협력을 예상하지 않고 쓴 작품은 거의 없으며 ″나의 시를 읽을 때는 노래하듯 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3]

---

2)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안삼환 역, (서울 : 민음사, 1996), p. 169-170

3) 한국 괴테 협회, 괴테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3), p.15

절제된 표현의 결정체인 시로 작곡된 가곡은 단순한 언어의 나열이 아닌 시와 음악의 조화로 끊임없이 연구, 연주되고 있다. 이러한 음악과 시의 참된 결합은 낭만파 음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괴테의 시는 그 자체로서 이미 훌륭한 언어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성이 뛰어나다. 이것이 18세기와 19세기에 걸친 많은 작곡가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 수많은 가곡을 낳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독일가곡의 역사는 괴테와 더불어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다.

2. 작곡가

1) 슈베르트 가곡의 일반적 특징

F.Schubert(1797~1828)는 낭만파 작곡가를 대표하는 원숙한 작곡자로서 음악사상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고전과 낭만 어느 것에나 다 속할 수 있는 성격으로 양자를 결부 시키고 있다.

Wien 출생이며, 가난하였지만 그것을 괴로워하지는 않는 사람으로 타고난 Bohemian이었다. 감정적이고 자유분방한 공상적 천성으로, 단순한 기분을 표현하는 짧은 소품을 즐겨 썼다. 그의 음악에서는 온화하고 애수가 깃든 곡조, 아름다운 조바꿈, 무한한 상상력 등이 나타나며 다정다감하다.[4)]

슈베르트를 흔히 가곡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600곡이 넘는 많은 가곡을 작곡했다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고전파에서는 중

4) 박수연, Goethe의 詩 "Nur wer die Sehnsucht kennt"를 歌詞로한 獨逸 歌曲의 比較와 分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3), p. 6,7

요시 하지 않던 가곡장르를 작곡가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예술로 끌어 올린 점과 그동안의 이탈리아가곡의 영향에 있던 독일가곡을 순수한 독일식으로 확립시켰기 때문일 것이다.[5)]

슈베르트의 가곡형식은 4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첫 번째로는, 매 악절마다 같은 음악이 반복되는 엄격한 유절 가곡 형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사의 필요상 반주부나 선율이 약간의 변화를 갖는 변형된 유절가곡형식, 세 번째로는 반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 내용에 따라서 멜로디가 바뀌는 통절 가곡형식, 네 번째로는, 이야기에 따라 서로 다른 템포와 분위기를 갖는 가극 형식이다.

그는 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높은 식견을 갖지는 못했으나 그의 다채로운 기법과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꾸밈없는 선율은 시의 정서를 표현해 내는데 적합했고, 비록 그 시가 평범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특히 그는 언어의 뉘앙스를 정확히 포착해서 썼기 때문에 슈베르트의 가곡을 외국어로 고쳐서 부를 때는 가사와 음악의 긴밀한 연관이 깨어지고 만다.[6)]

그의 가곡을 ″음악이 된 언어와 시″ 또는 ″음악의 의상을 입은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가곡은 시와 음악이 일치된 완벽에 가까운 예술로써,[7)] 짧은 한 곡이 큰 교향곡에 필적하는 내용을 지닐 수 있다는 커다란 사실을 음악사 속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다.

---

5) 이지오, 19c 낭만주의 예술가곡 J.W.Goethe의 시 "Mignon"에 의한 <미뇽의 노래>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5), p. 22

6) 홍선호, F.Schubert의 연가곡 작품25 "Die Schöne Müllerin"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7), p. 23

7) 김오수, Goethe의 시 "Nur wer die Sehnsucht kennt"를 가사로 한 가곡의 비교·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4), p. 4

2) 슈만 가곡의 일반적인 특징

R. Schumann(1810~1856)은 F. Schubert의 뒤를 이어 독일 예술가곡을 계승 발전시켜나간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1830년부터 거의 10여 년 동안 피아노곡 작곡에 주력하던 그는 1840년부터는 「가곡의 해」라 불릴 정도로 한 해 동안 100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하였다.

Schubert와 비교해 본다면 Schubert의 가곡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데 비해 그의 가곡은 시에 대한 깊은 해석, 표현의 섬세함, 반주부를 중요시하는 지성적이며 복잡한 성격을 들 수 있고, 슈베르트가 낭만적이기는 하나 항상 고전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슈만은 순수한 낭만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슈만은 시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문학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곡을 작곡할 때 대체로 시의 성격에 의해 음악의 스타일을 결정함으로써 시와 음악의 일치를 보여주며 음악과 문학의 새로운 연결점을 발견하였다.

그는 단어의 강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의 억양이 음악의 강약과 일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의 표면적인 뜻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숨은 뜻에 알맞은 음악적인 표현을 찾기 위해 피아노와 노래, 음악과 시를 동등하게 엮어 나갔다.[8)]

이러한 그의 노력은 문학적인 개념을 음악구성 기초에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파악되었으며, 19C 의 표제음악이 프랑스에서는 베를리오즈에게서 비롯되었듯이, 독일에서는 슈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게 하였다.[9)]

---

8) 구자은, 슈만의 연가곡「여인의 사랑과 생애」Op.42 분석 ·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음악대학원, 2003), p. 7

시의 선택에 있어서, 슈베르트의 경우는 괴테나 쉴러의 작품이 가사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슈만은 유명한 시인의 것만을 고집하지 않았는데, 샤미소[10]와 쾨르너[11]의 작품을 사용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슈만은 피아노를 가장 친근한 악기로 여겼던 만큼 가곡에 있어서도 피아노를 중요시 했다. 그의 가곡은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라 할 만큼 피아노 반주는 특징적이다.

전주와 후주는 중요하게 쓰여 졌으며 노래 부분과 동등한 입장에서 곡 분위기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후주부분이 다른 작곡가들의 후주보다 긴 것을 볼 수 있는데, 노래 선율의 느낌과 후주의 느낌이 거의 일치되며, 성악 선율을 그대로 이어받아 느낌을 지속시켜주면서 반주로서만이 아닌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가 반주를 노래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에 대해 Philip Sipita 박사는 "슈베르트와 멘델스존에 있어서의 piano part는 때론 풍부하고 독립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반주라는 말이 극히 어울린다. 그러나 슈만에 있어서의 piano part는 성부에 대해 권위와 평등을 주장한다. 그의 가곡을 완전히 연주하려면 피아니스트는 성악성부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성악가는 피아니스트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양자는 끊임없이 서로 소통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12]

---

9) 나유창, GOETHE의 作品 <Wilhelm Meister> 中의 詩 - Gesänge des Harfners Ⅰ. Ⅱ. Ⅲ -을 Text로 한 F. Schubert, R. Schumann, H. Wolf의 哥曲 比較硏究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p. 12

10) 샤미소 (Albert von Chamisso, 1781-1838)

11) 쾨르너 (Christian Gottfried Körner, 1756-1831)

12) Finck, Henry Theophilus, Songs and Song-Writers. (국민음악연구회 역) p. 111

그의 선율해석은 범위가 넓고 안정되어있으며 숨 돌릴 틈 없는 강력한 개성을 나타낸다.

화성 역시 매우 개성적인데 반음계의 수직적 표현보다 선율을 급변시키는 것을 즐겨했다. 온음계적 불협화음과 Sequence를 즐겨 쓴 것은 Bach의 음악을 애호하여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13)]

그는 풍부한 것과 현란한 것을 특히 좋아하여 주제적인 발전은 거의 없고, 매혹적인 악구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여 조금은 변덕스럽기도 하고 단순한 매력을 느끼게도 한다. 우연한 것처럼 음을 찾아내어 그것을 정당화하고 강조하는 것을 즐겨서, 쇠퇴함을 모르는 생명력과 변화가 풍부한 아름다움, 싱싱한 정열과 신선함을 풍긴다.

3. 소설「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대하여

1) 문학적 가치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으로 시작된 이 소설은 1785년 제6권까지 끝맺고 제7권을 집필하던 중 중단되었다가, 괴테를 고전주의로 전향케 한 이탈리아 여행(1786~1788)이후, 1794년에 다시 집필되어 1796년「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로 개작된 소설이다. 괴테는 처음에는 국민의 미학적 교육을 목적으로 이 소설을 집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인간교양의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주인공 빌헬름은 여러 인물들을 통해 조금씩 인생관과 인격을 형성해 가면

13) 박수연, Goethe의 詩 "Nur wer die Sehnsucht kennt"를 歌詞로한 獨逸 歌曲의 比較와 分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3), p. 17

서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해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는 독일 문학사에서 독특한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교양소설'(Bildungsroman)[14]에 속하는 작품으로 다른 작가들의 교양소설의 모태가 되었다.

빌헬름은 시민의 인격형성의 걸림돌인 신분제 사회로부터 탈출구를 찾아 자신의 개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귀족들은 자유의지로 자신들의 신분에 의한 특권을 포기하고 시민과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한다.[15]

이로써 괴테는 사회 공공에의 봉사에 있어서 부단한 활동을 강조하고, 이것에 의해서만 인간이 자기완성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회적 교육학으로서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16]

괴테는 빌헬름이란 인물을 교육시키기 위해 여러 인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 목사, 신부, 야르노, 나탈리에, 로타리오를 통해서는 이성적으로 통제된 인간으로 교육시키고 있으며, 하프 타는 노인과 미뇽을 통해서는 낭만적인 면모를 갖게 한다.[17]

이 작품에서 괴테가 보여주는 대가로서의 면모는 모든 휴머니즘의 문제들을 구체적 삶의 방황에서와 구체적 인간의 분명한 체험에서 나타나도록 했다는 점이며 동시에 이들은 오늘날에도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18]

---

14) 교양소설 : 주인공이 유년기의 행복스러운 꿈속에서 점차 자아에 눈을 뜨고 우정 또는 연애를 경험하며 사회의 현실과 싸워 상처 받으면서 자기 형성을 해나가는 성장과정을 그린 장편소설 (강두석, 괴테의 생애와 사상, 미문출판사, 1977. p. 472)

15) 강여정, 괴테의 서정시 "미뇽의 노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p.9

16) 김선양, 교육사 (형설출판사,1978), p. 179

17) 이은선, 미뇽의 노래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p. 2

18) R.프리덴탈, 괴테의 생애와 시대 (서울 : 평민사, 1985), p. 553

특히 이 소설은 법률을 배워 법률가의 길에 들어섰으면서도, 그것을 버리고 시인이 되어 바이마르의 궁정 생활에 들어가게 된 젊은 괴테의 인생행로가 투영되어있다.

2) 줄거리

제 1권

주인공 빌헬름은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업을 배웠지만, 연극에 몰두하여 몰래 극장에 출입하며 여배우 마리아네와 사랑에 빠진다. 마리아네의 부정한 소문을 들은 친구 베르너는 빌헬름이 본업으로 돌아오기를 충고하나 그는 오히려 그녀와 사랑의 도피를 결심한다. 그러나 빌헬름은 우연히 마리아네의 스카프 안에서 그녀의 정부 노어베르크의 편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시, 연극,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정을 단념하고 상업에 전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마리아네는 빌헬름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노어베르크와의 관계를 끊고자 결심한 상태였다.)

제 2권

빌헬름은 시골로 상용여행을 떠난다. 그가 묵던 여관에서 연극 배우인 라에르테스, 필리네, 멜리나부부, 하프 타는 노인과 만나게 되고, 그들은 모임을 이룬다. 마침 여관 앞에서 흥행을 벌이고 있는 서커스단의 한 소녀가 단장으로부터 학대받는 것을 보고 빌헬름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단장으로부터 산다. 그 소녀의 이름은 미뇽이며 자신이 몇 살인지도 모르는 남장을 한 여자 아이였다. 미뇽은 자신을 구해준 빌헬름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빌헬름은 이러한

미뇽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느껴 양녀로 삼는다. (미뇽의 노래 제1곡 Kennst du das Land 삽입부분)

또한 연극에의 열정을 단념했음에도 불구하고, 멜리나 부부 극단의 후원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다.

제 3권

멜리나 극단은 어느 백작의 성에 초대 받아 연극공연을 한다. 빌헬름은 연극 공연 준비 기간동안 백작 부인과 사랑을 하게 되지만 알 수 없는 운명을 예감한 빌헬름과 백작부인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슬퍼하며 공연이 끝나자 빌헬름은 극단과 함께 떠난다.

제 4권

빌헬름의 권유로 멜리나 극단은 백작의 성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 이때 강도를 만나 빌헬름은 부상을 당하고 필리네와 미뇽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은 그를 원망하며 떠나버린다. 상처입은 빌헬름을 어느 백마탄 여인이 도와주어 치료를 받고 여관으로 인도되어 온다. 그는 여인의 모습에서 백작부인과 친자매 같은 모습을 느껴 사방으로 찾아보지만 도저히 알 길이 없어 포기하고 만다. 이때 미뇽과 하프 타는 노인이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이 괴로움을 알리라(Nur wer die sehnsucht kennt Wiess, was ich leide!)″라는 이중창으로 빌헬름을 위로한다.(미뇽의 노래 제2곡 Nur wer die Sehnsucht kennt 삽입부분)

제 5권

빌헬름은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듣는다. 그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연극에 몰두한다. 많은 연습으로 햄릿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유령역을 맡은 이름모를 객원배우의 베일에 적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한다! 도망쳐라, 젊은이 도망쳐라〃라는 글을 읽고 잠시 연극의 길로 들어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즈음에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하프 타는 노인이 남자 아이가 자신을 죽일거라는 생각에 빠져들고 극단에 있던 꼬마 남자 아이를 보자 미쳐서 극장에 불을 지른다. 그 아이는 제를로의 여동생 아우렐리에가 데리고 있던 아이 펠릭스였고 노인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아우렐리에는 병이들고, 임종직전 사랑하였으나 배반당했던 로타리오에게 자신의 편지를 배달해 줄 것을 빌헬름에게 부탁한다. 빌헬름은 유언을 지키기 위해 연극을 잠시 접고 로타리오를 찾아 여행길에 오른다. (미뇽의 노래 제3곡 Heiß mich nicht reden 삽입부분)

제 6권

「어느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이라는 수기 내용. 이것은 빌헬름이 하프타는 노인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위탁했던 의사에게 받은 것인데, 신앙심이 두터운 한 독신여성이 쓴 것으로, 빌헬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나라로 만들려는 노력의 귀중함을 깨닫게 한다.

제 7권

빌헬름은 로타리오의 배신을 꾸짖으려 했으나, 아우렐리에의 일방적이고 맹

목적인 사랑이었음을 알고 오히려 성실한 로타리오와 가까워진다. 로타리오의 성에서 그는 신부와 야르노,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 로타리오의 아들인 줄 알았던 펠릭스가 사실은 마리아네가 낳은 자신의 아이였음을 알게 되고 또한 마리아네의 진심을 전해 듣고 괴로워한다.

제 8권

로타리오의 건전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에 감동받은 빌헬름은 자신도 그곳에서 살기로 한다. 백마탄 여인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는 그곳에서 만난 테레제와 약혼한다. 테레제는 로타리오의 옛 애인이었으나, 전에 어느 귀족의 부인과 사랑에 빠졌던 로타리오가 그 귀족부인이 바로 테레제의 어머니였음을 알고 죄책감으로 테레제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빌헬름은 그녀에게 펠릭스와 미뇽의 교육을 맡긴다. 그러나 테레제는 자신이 없어 로타리오의 동생 나탈리에에게 아이들을 맡긴다. 그러던 어느날 미뇽이 날마다 야위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빌헬름은 로타리오의 동생 나탈리에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백마 탄 여인이었음을 알게 된다.

크리스마스가 되어 미뇽은 천사로 변장하여 한손에는 백합꽃을 다른 손에는 선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두들 진짜 천사가 나타난 줄 알고 놀란다. 놀이가 끝난 후 미뇽은 천사를 동경하는 노래를 부른다. (미뇽의 노래 제4곡 So laßt mich scheinen삽입부분)

미뇽은 의사에게 자신의 과거와 빌헬름에 대한 동경을 고백하고, 그녀가 이탈리아에서 납치되어온 약간의 경로를 밝힌다.

이때 빌헬름과 나탈리에는 테레제의 어머니가 계모였으며, 로타리오가 테레제와의 재결합을 원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테레제 역시 이 소식을 듣고 미뇽

을 문병 온 빌헬름에게로 달려온다. 빌헬름과 테레제의 포옹과 키스 장면에 충격을 받은 미뇽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다. 미뇽의 장례식장에서 나탈리에의 외조부의 친구인 이탈리아의 귀족은 미뇽의 팔에 있는 수난의 십자가를 보고 그녀가 잃어버린 자신의 조카이며, 하프 타는 노인은 미뇽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친동생 아우구스틴이라는 사실을 글로 밝힌다. 자신의 부모는 노년에 낳은 딸 스페라타를 불명예로 여겨 비밀리에 출산하고는 친구에게 맡아 기르게 했는데 성장한 스페라타는 아우구스틴이 자신의 친 오빠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미뇽이라는 것이다. 그들 둘 사이를 인정하지 못한 신부를 통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미뇽은 바닷가에 사는 귀족에게 보내지는데, 뛰어 다니며 재주부리기를 좋아하던 미뇽은 놀러 다니다가 그만 실종되어 버린다. 그녀의 모자가 바닷물 위에서 발견되자 바닷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으나, 사실은 서커스단에 유괴되어 이 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우연히 이 글을 읽게 된 아우구스틴은 자살을 한다. 이 사건 이후 빌헬름은 결국 단순히 펠릭스의 양육을 위해 테레제가 필요했을 뿐 자신의 감정은 나탈리에에게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결국 재결합을 결심한 테레제와 로타리오의 주선으로 빌헬름은 마침내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룬 새 시대의 "아름다운 영혼"인 나탈리에와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찾게 된다.

빌헬름은 일정한 목표 없이 여정을 시작했으나 여행을 통해 자신의 길로 회귀했으며, 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랑을 만나게 된다. 그의 여행은 오류로 점철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돌아온 현실에서 자신의 진정한 이상을 찾은 것이다.

3) 미뇽의 인물분석

미뇽이라는 명칭은 당시 어법으로 말하면 남색의 상대가 되는 소년, 혹은 정부를 의미하거나 귀여운 아이, 또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19]

소설속에서 미뇽이란 인물은 빌헬름의 인격 형성과정을 돕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녀는 빌헬름의 도움으로 곡예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빌헬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지만 사실상은 그를 사랑하여 빌헬름이 연애하는 여인들에게 질투심을 가지고 경계한다. 이 소설에서 그녀는 이국적인 외모로 신비스럽게 묘사되며 작은 키, 검은 피부, 나이를 알 수 없는 소녀로 묘사되지만 아이가 아닌 아이와 처녀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언어와 글씨 쓰기에 서투르고 교육받기를 원하나 매우 이해하기를 힘들어하는 현실세계와는 유리된 인물이다. 미뇽과 하프 타는 노인은 서로의 관계를 몰랐으나 두 사람이 부르는 미뇽의 노래에서는 서로가 부녀지간임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미뇽의 출생의 비밀은 소설의 끝에 그녀가 근친상간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아들 셋 외에 말년에 딸(스페라타)을 하나 얻게 된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그 딸을 비밀리에 낳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다. 나중에 이 딸의 가족이 근처에 살게 되었고 왕래도 하였다. 그러다 사제였던 둘째아들(아우구스틴)은 스페라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 살기 위해 사제직을 버리려 한다. 그는 나중에 스페라타가 자기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미뇽은 남의 손에서 키워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서커스단에 납치되어 고향 이탈리

19) 안진태, 괴테문학의 여성미 (열린책들, 1995)

아를 떠나게 되는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는 납치된 그녀를 찾아 헤매며 방랑생활을 시작한다.

서커스단에서 곡예를 하며 고생하던 미뇽은 빌헬름에 의해 구출되는데 그 후 미뇽은 빌헬름을 뒷바라지 하고 그의 아들 펠릭스를 돌보았으며 그녀의 아버지 하프 타는 노인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가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을 끝내 알지 못한다. 빌헬름은 아버지 같은 애정으로 그녀를 돌보았지만 그녀의 빌헬름에 대한 사랑은 점점 성숙되어 갔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절망한 미뇽은 비극적 죽음을 맞는다.

이러한 미뇽의 출생배경과 그녀의 내성적이고 감성적이며 신비스러운 성격이 낭만주의 시대의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 소재가 된 것이다.

4. 시 해석 및 작품 배경

1) Kennst du das Land (당신은 아시나요)

이 시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제3권 1장에 나오는 시로, 빌헬름이 서커스단에서 구출해온 미뇽을 딸처럼 돌볼 것을 맹세하자, 다음 날 아침 미뇽이 빌헬름에게 부르는 노래이다. 이 시의 주제는 사랑하는 연인과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은 염원이나 동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1연에 등장하는 레몬 꽃, 오렌지 나무는 이탈리아의 봄을 그리고 있으며, 2연에서는 지붕, 홀, 방, 대리석상으로 이탈리아의 예술을, 3연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들어오는 알프스 협로를 그렸는데 이 길은 미뇽이 납치되어 넘어온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세 개의 연이 다같이 미뇽의 고향인 이탈리아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각 연의 마지막에서 <내 사랑 mein Geliebter>, <내 보호자 mein Beschützer>, <아버지 Vater>로 빌헬름을 부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빌헬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제2연에 나오는 「가엾은 아이야, 무슨 몹쓸 일을 당했느냐? Was hat man dir, du armes Kind getan?」라는 구절이 미뇽의 납치되어온 기억을 나타내고 있다.

제3연의 3행부터는 시의 내용이 다소 음침하고 암울해졌음을 볼 수 있고, 뒤이어 나오는 <그 나라를 아시나요? Kennst du ihn wohl>에서는 비밀에 가득 차 있는 듯 신중하고, <그곳으로! 그곳으로! Dahin, dahin!>라는 부르짖음 속에는 억제할 수 없는 동경이 숨쉬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가사인 <우리 그리로 가요! geht unser Weg >라는 대목을 되풀이 할 때에는 때로는 애원하고 간청하는 듯, 때로는 촉구하고 기대하는 듯 감정의 변화가 많음을 엿볼 수 있다.[20]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n,	당신은 아시나요? 레몬꽃 피는 그 나라를
Im dunkeln Laub die Goldorangen glühn,	그늘진 잎새 사이에 황금빛 오렌지가 빛나고
Ein sanfter Wind vom blauen Himmel weht.	파란 하늘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며
die Myrte still und hoch der Lorbeer steht?	미르테 나무가 조용히 키 큰 월계수 서 있는 그 나라를?
Kennst du es wohl?	당신은 아시나요?
Dahin, dahin	그 곳으로, 그 곳으로
möcht ich mit dir, o mein Geliebter, ziehn!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오 사랑하는 이여
Kennst du das Haus, auf saulen ruht sein Dach,	그 집을 아시나요? 기둥 위에 지붕은 편히 쉬는
Es glänzt der saal, es schimmert das Gemach,	홀은 찬란하고 방은 은은히 빛나는 곳
Und Marmorbilder stehn und sehn mich an:	대리석상들이 서서 나를 바라보며
Was hat man dir, du armes Kind getan?	가엾은 아이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주는 그 집을?
Kennst du es wohl?	당신은 아시나요?
Dahin, dahin	그 곳으로, 그 곳으로
möcht ich mit dir, o mein Beschützer, ziehn!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오! 나의 보호자여.
Kennst du den Berg und seinen Wolkensteg!	그 산과 구름 쌓인 그 길을 아시나요?
Das Maultier sucht im Nebel seinen Weg,	노새가 안개 속에서 길을 찾고
In Höhlen wohnt der Drachen alte Brut	동굴에는 늙은 용이 살며
Es strüzt der Fels und über ihn die Flut:	무너져 내리는 바위위로 폭포수 쏟아져 내리는 곳
Kennst du ihn wohl?	당신은 아시나요?
Dahin, dahin geht unser Weg ; o Vater,	그 곳으로! 그 곳으로 우리의 길을 가요 ; 오 아버지 우
laß uns ziehn!	리 함께 가요![21]

20) 김종홍, Goethe의 시 "KENNST DU DAS LAND"를 중심으로 한 고전·낭만 작곡가들의 음악어법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p. 17

21) 피종호, 아름다운 독일시와 가곡 (서울 : 자작나무, 1999), p. 180-181

2) Nur wer die Sehnsucht kennt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이 시는「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제4권 11장에 나오는 시이다.

빌헬름이 극단의 무리와 함께 여행길에서 도둑떼를 만나 부상을 입고 알지 못하는 여성 일행에게 도움을 받게 된 후, 그 여성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어 꿈꾸는 듯 동경에 잠겨 있을 때에 미뇽과 하프 타는 노인이 부르는 노래로 시 전체의 주제가 동경과 그리움이다.

빌헬름은 이 노래를 들으며 자신을 구해준 여성을 그리워하고 미뇽은 자기를 구해준 빌헬름을 그리워하고 있다.

Nur wer die Sehnsucht kennt,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Weiß, was ich leide!	나의 괴로움 알리!
Allein und abgetrennt	모든 기쁨으로부터
Von aller Freude	떨어져 나 홀로
Seh ich ans Firmament	저편 저쪽
Nach jener Seite.	하늘만 바라보네.
Ach! der mich liebt und kennt,	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는 이
Ist in der Weite.	먼 곳에 있네.
Es schwindelt mir, es brennt	어지러워라.
Mein Eingeweide.	내 마음 타들어 가네.
Nur wer die Sehnsucht kennt,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Weiß, was ich leide!	나의 괴로움 알리![22]

22) 피종호, 위의 책, p. 188-189

3) Heiß mich nicht reden (말하라 하지 마세요)

이 시는「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제5권 16장에 나오는 시이다.

미뇽이 길을 잃었을 때에 사람들이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고 강제로 납치해 갔기 때문에 어린 미뇽이 큰 충격을 받아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집과 출생을 말하지 않기로 맹세하게 되고 이러한 그녀의 의지를 드러내는 시이다.

1연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2연은 그런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허망함을, 3연은 스스로의 맹세와 비밀을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께 위로 받는 미뇽을 묘사하고 있으며 매우 서정적이고 미뇽이 울부짖는 독백과 같은 내용이다.[23)]

이시는 내용과 관련 없이 빌헬름이 로타리오의 성으로 가기 전 소개된다.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말하라 하지 마세요. 침묵하라고 하세요.
Denn mein Geheimnis ist mir Pflicht;	비밀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의무니까요.
Ich möchte dir mein ganzes Innre zeigen	제 속을 완전히 당신께 보이고 싶지만
Allein das Schicksal will es nicht.	운명이 허락하지 않는군요.
Zur rechten Zeit vertreibt der Sonne Lauf	태양의 운행이 제 시간에 맞추어
Die finstre Nacht, und sie muß sich erhellen;	캄캄한 밤을 쫓아내면, 반드시 아침은 밝고,
Der harte Fels schließt seinen Busen auf,	단단한 바위도 제 가슴을 열어서
Mißgönnt der Erde nicht die tiefverborgnen Quellen.	깊이 감추인 샘물을 대지에 허락하지요.

23) 강여정, 괴테의 서정시 "미뇽의 노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p. 49

Ein jeder sucht im Arm des Freundes Ruh,	누구나 친구의 품에서 휴식을 찾으며
Dort kann die Brust in Klagen sich ergießen;	마음속의 탄식을 쏟아 버리지요.
Allein ein Schwur drückt mir die Lippen zu,	하지만 맹세 때문에 제 입술을 열 수 없어요.
Und nur ein Gott vermag sie aufzuschließen.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답니다.[24]

4) So laßt mich Scheinen (이 모습 이대로 둬요)

이 시는「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제8권 3장에 나오는 시이다.

이 시를 노래하기 전 미뇽은 천사놀이에서 천사 역을 담당한다.

놀이가 다 끝나 그녀로부터 옷을 벗기려 하자 그녀는 옷 벗기를 거절하며 이 노래를 하는 것이다. 미뇽은 생의 수난을 몸소 지닌 천사로서 내세에 다시금 젊은 여인으로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녀는 빌헬름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죽음을 예감하고 연극에서와 같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다. 이 노래에서 죽음은 밝은 세계로의 전향이며 이승에서 성취가 불가능한 그리움의 실현이다.

천사라면 좋겠다는 미뇽의 바람과 천사의 옷을 입은 미뇽의 태도가 시에 반영된 것으로 볼때, 미뇽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시로 생각된다.

---

24) 피종호, 위의 책, p. 182-183

So laß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이 모습 이대로 둬요. 바라는 대로 될 때까지
Zieht mir das weiße Kleid nicht aus!	내 입은 흰옷을 벗기지 마세요!
Ich eile von der schönen Erde	나는 이 아름다운 땅으로부터
Hinab in jenes feste Haus.	저 어두운 집으로 달려 내려가겠어요.
Dort ruh ich eine kleine Stille,	그 곳에서 고요하게 잠시 쉬고 나면
Dann öffnet sich der frische Blick,	나의 눈이 시원하게 열릴 거예요.
Ich lasse dann die reine Hülle,	그 때는 이 순수한 옷과
Den Gürtel und den Kranz zurûck.	허리띠와 화관은 남겨 두지요.
Und jene himmlischen Gestalten,	저 천국의 형상들,
Sie fragen nicht nach Mann und Weib,	그들은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Und keine Kleider, keine Flaten	어떤 의복이나 장식으로도
Umgeben den verklärten Leib.	변화된 자신의 몸을 감싸지 않지요.
Zwar lebt ich ohne Sorg und Mühe,	비록 나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아왔지만
Doch fühlt ich tiefen Schmerz genug.	깊은 아픔도 충분히 느꼈답니다.
Vor Kummer altert ich zu frühe	슬픔으로 인해 너무 일찍 늙어 버렸죠.
Macht mich auf ewig wieder jung!	다시 나를 영원히 젊게 해 주세요![25]

25) 피종호, 위의 책, p. 186-187

5. 작품 분석 및 연주상의 유의점

1) 슈베르트

①Kennst du das Land

<표 1> 형식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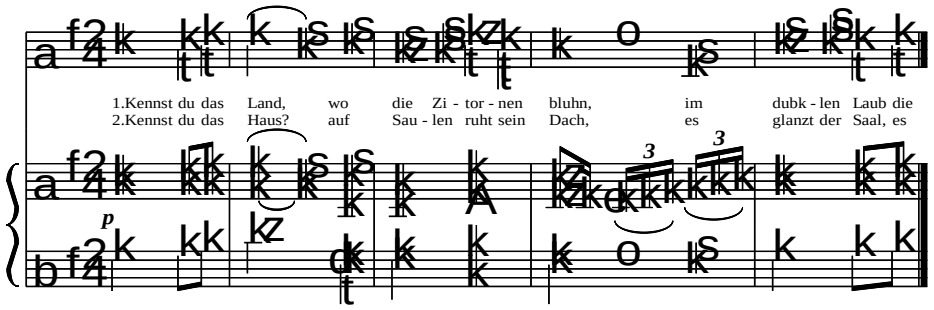
형 식	A		A′	
	a	b	a′	b
가 사	1연 2연		3연	
마 디	1~18	19~40	41~59	60~81
조 성	F→A♭→f→D♭→f	F	f→D♭→f	F

이 곡은 A A′로 A부분이 반복되는 변형된 유절가곡 형식이다.

A부분은 반복하지만 가사가 다르며 A′부분은 같은으뜸음조로 전조되고 A′의 b부분에서 다시 주조로 돌아가 b부분이 반복되면서 곡이 끝난다. 조금 변형된 유절가곡으로 볼 수 있다.

이 곡의 특징은, 어린 미뇽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주를 생략하고, 미뇽의 천진함을 온음계의 단순한 화성으로 나타낸 것이다. (악보 1)

<악보 1> 1마디에서 5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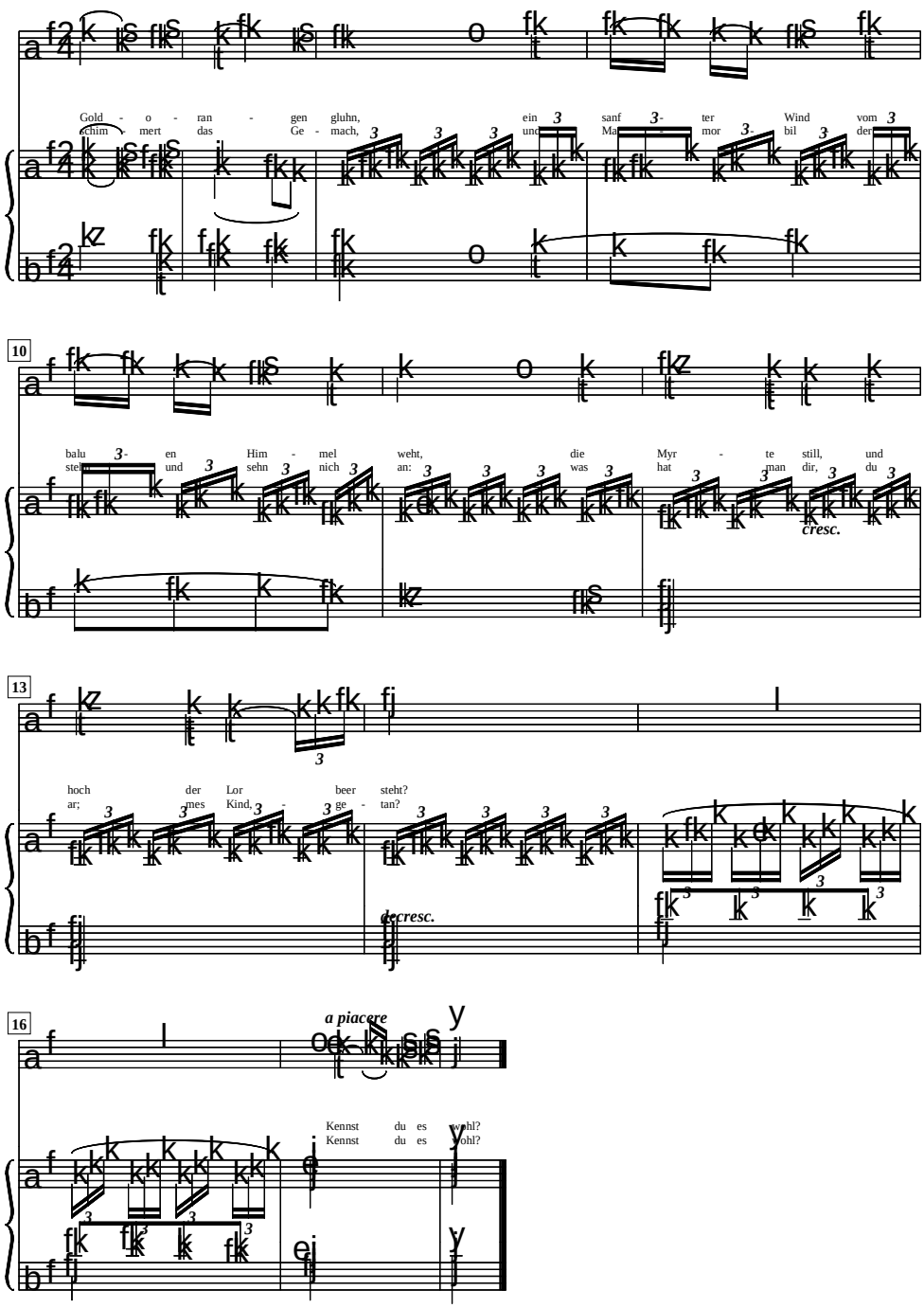
낭만주의에 나타나는 중심조성과 연관성이 없는 극단적인 전조를 하지 않고 낭만주의 이전에도 많이 나타났던 관계조로의 전조가 나타난다.

또한 dahin을 많이 반복하고 있는데 슈베르트가 선율의 구성을 위해 가사를 많이 반복하여 쓴 특징을 보여준다.

3마디의 accent는 Zitronen blühn (레몬꽃이 피는)을 묘사하기위한 것으로 너무 강하지 않게, 꽃이 피어나는 느낌으로 적절하게 해 주어야 하며 4마디는 성악가의 호흡을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한다.

8마디~16마디까지의 오른손 삼연음부는 미뇽이 자신의 고향풍경, <Ein sanfter Wind vom blauen Himmel weht die Myrte still und hoch der Lorbeer steht 파란 하늘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며 미르테 나무가 조용히 키 큰 월계수 서 있는>을 묘사한 것으로 가볍게 친다.(악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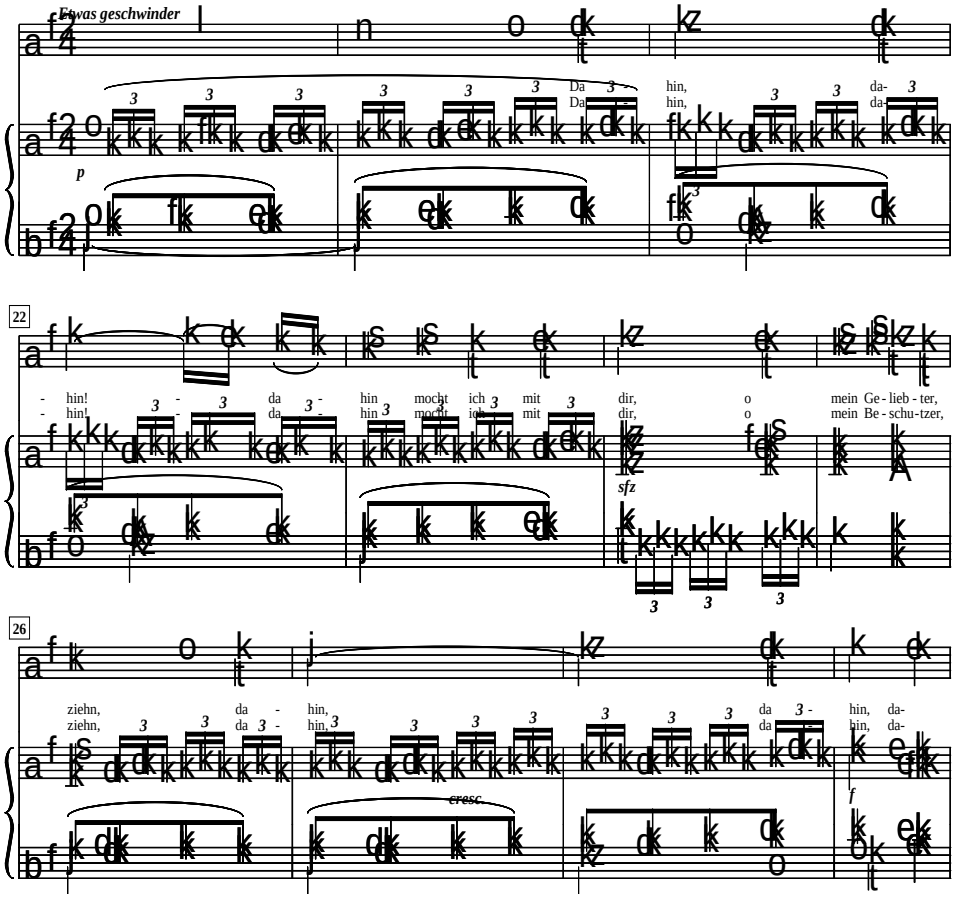
<악보 2> 6마디에서 18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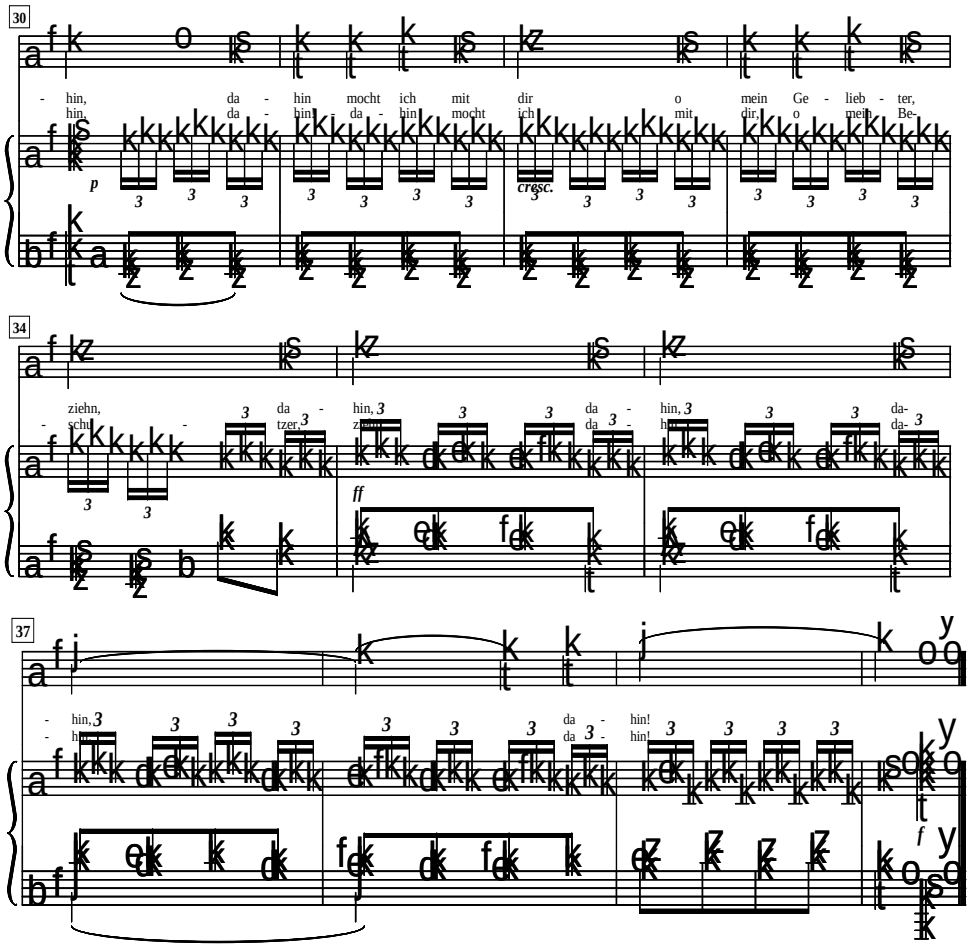


17~18마디는 아리아의 recitative적인 표현으로, 울림을 충분히 주어 노래가 울림속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19~40마디는 <Dahin, dahin 그곳으로, 그곳으로>가 반복되며 고향을 그리는 미뇽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부분으로 각 마디별 slur와 accent를 충분히 살려 주며 격렬한 감정을 표현해야 하며, 20마디~23마디까지는 오른손에서 Melody를 부분적으로 doubling하고 있고, 23마디에서는 왼손이 멜로디와 함께 가기 때문에 선명하게 친다.(악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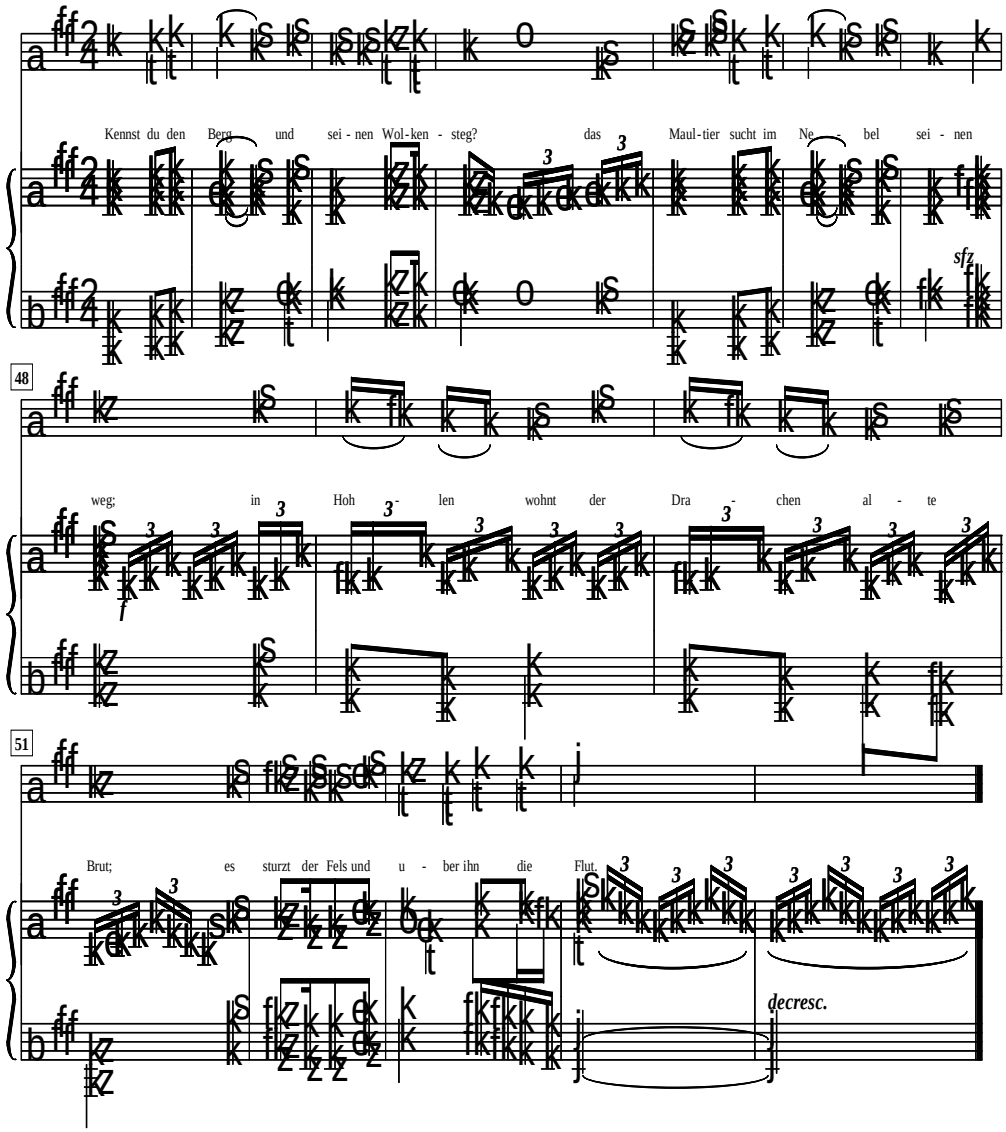
<악보 3> 19마디에서 40마디





A'가 시작되는 41마디부터는 음침하고 암울해진 시의 내용＜Berg und seinen Wolkensteg 구름덮인 산, Höhlen 동굴, Drachen 용, Es strüzt der Fels und über ihn die Flut 무너져 내리는 바위와 폭포수＞에 따라 반주 역시 minor의 무거운 느낌으로 연주한다.(악보4)

<악보 4> 41마디에서 55마디



②Nur wer die Sehnsucht ken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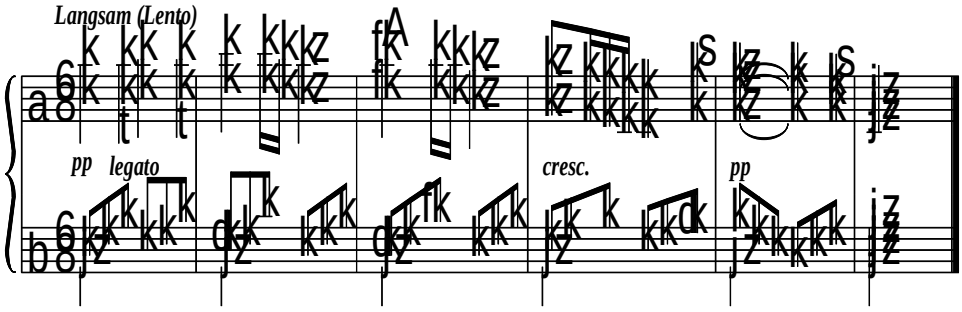
< 표 2 > 형식 표

형 식	A		B		A′	
	a	a′	b	C	a	a"
가 사	1~2행		3~8행	9~10행	11-12행	
마 디	1~10	11~15	16~26	27~33	34~37	38~46
조 성	a	a→C	g→d	d→a→e→a	a	a

6/8 박자의 Langsam 46마디로 이루어진 A-B-A′의 통절형식이다.

이 곡의 특징은 전주부에서부터 tonic pedal point를 길게 사용하여 불협화음을 나게 함으로써 곡 전체의 우울한 분위기를 암시한 것이다.(악보 5)

<악보 5> 1마디에서 6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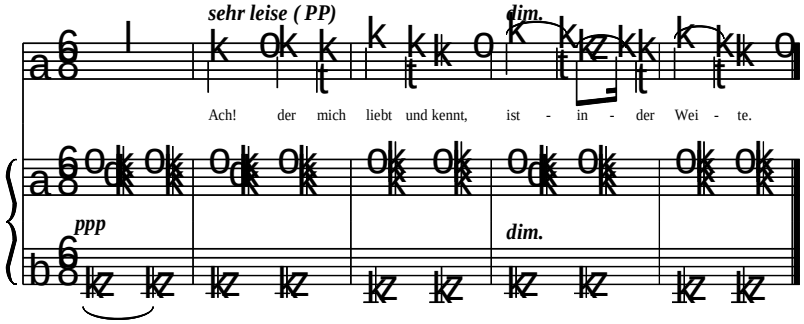


선율은 대체로 순차진행하며 슬프고 어두운 시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 주고 피아노 반주의 상성부와 중복된다.

전주와 후주는 동일한 화음으로 이 곡의 주제선율을 노래하고 노래가 그 선율을 받아 시작되면 반주는 종속적인 화음의 분산형으로 형태가 변하게 된다.

pp로 시작된 노래가 22마디에서는 ppp까지 나타나고 거기서 또 한번 dimin.되는 극단적인 악상을 사용함으로써 조용히 먼 창공을 바라보며 그리움에 잠긴 시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악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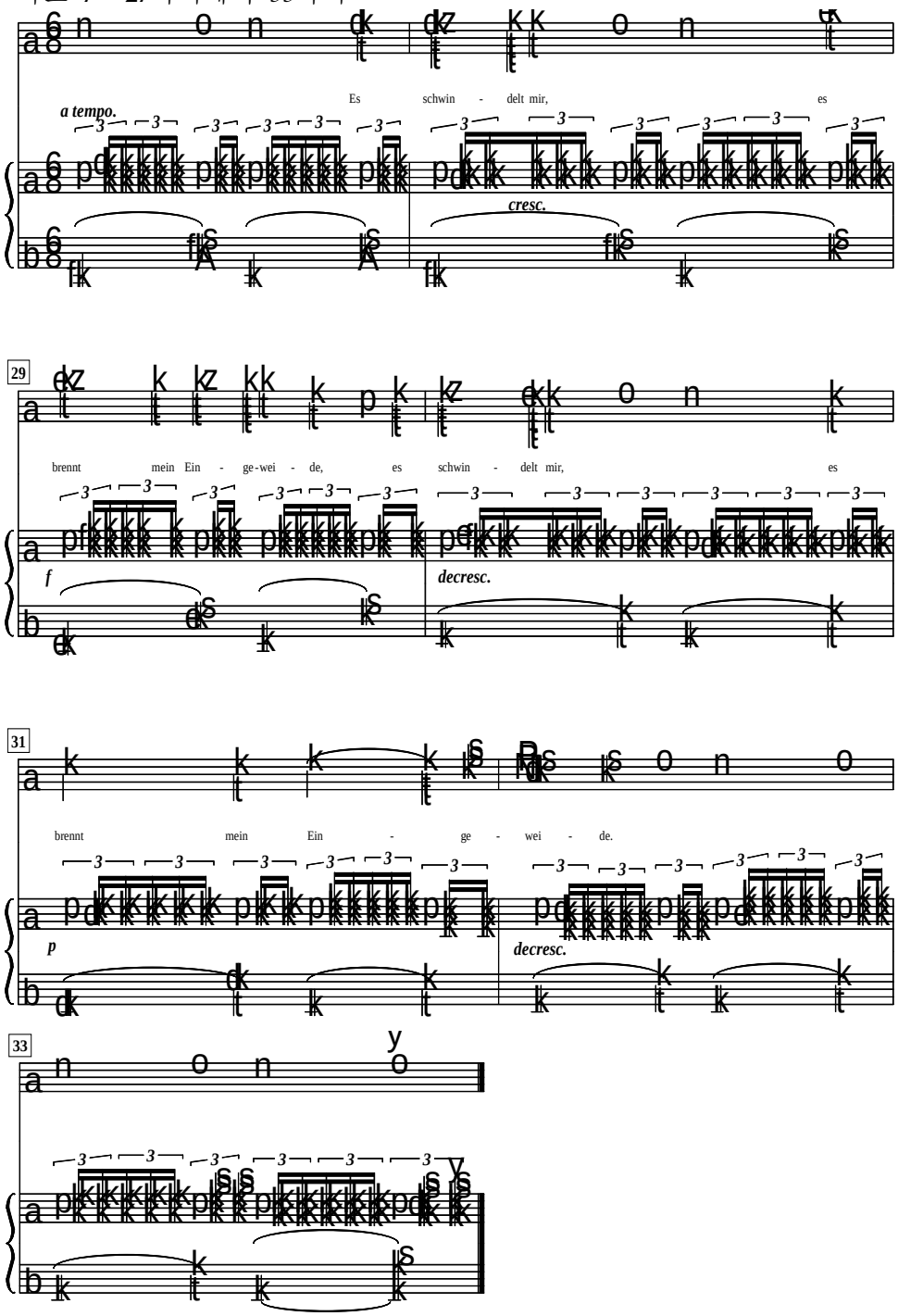
<악보 6> 22마디에서 26마디



전주는 동경과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인의 공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옥타브를 사용했으며 처음 두 마디는 노래의 멜로디와 일치된다. (악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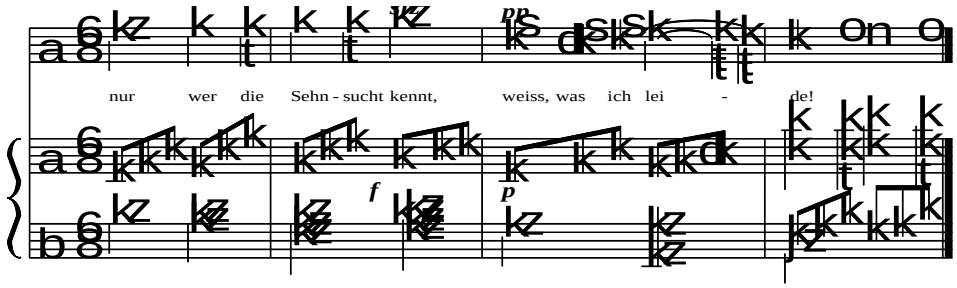
27~33마디는 recitative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으로 오른손부분이 밀리거나 들뜨지 않게, 밀도와 밀착감 있는 소리를 내어 <Es schwindelt mir, es brennt mein Eingeweide 어지러워라, 내 마음 타들어가네>라는 시의 격정적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왼손에서는 성악파트와 함께 반음계진행을 하고 있다.(악보 7)

<악보 7> 27마디에서 33마디



39와 40마디는 이 곡에서 가장 높은음인 F가 sf.와 함께 등장하여 감정의 최고조를 이루었다가 pp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pp부분은 허탈한 듯 사라지 듯 대조적으로 표현해 주어야한다.(악보 8)

<악보 8> 38마디에서 41마디



이 곡의 특징 중 하나가 전주와 후주가 같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후주는 전주를 레코딩 한 것처럼 똑같이 연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Heiß mich nicht reden

< 표 3> 형식 표

형 식	A	B	A′
가 사	1연	2연	3연
마 디	1~13	14~25	26~42
조 성	e→G	C	E→f♯→E→e→F→E

2/2박자의 느린 곡으로 A B A′로 된 통절가곡 형식이다.

A′부분은 A부분과 유사하나 화성적으로 조금 다른 형태로 나누어진다.

이 곡 역시 다른 곡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순차진행하며, Melody와

반주 선율이 중복되는 단순한 선율 진행으로 미뇽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강조하였다.

화성 역시 단순하며 왼손은 옥타브로 중복하여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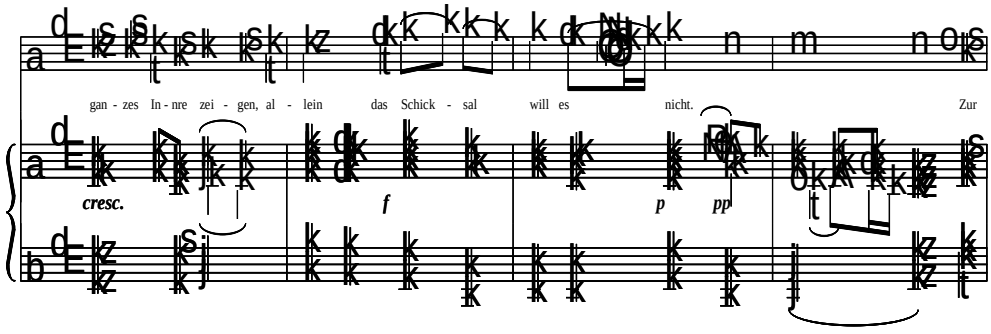
전주는 슈베르트가 즐겨 사용하는 ′죽음의 리듬′인 ♩ ♪♪ ♩♩을 사용하여 조용하고 절제된, 죽음 앞에서라도 비밀을 지키려는 미뇽의 비장함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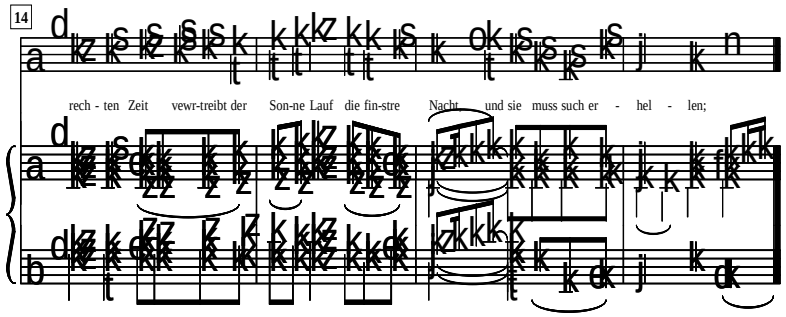
마지막마디를 major chord로 처리하여 영원한 세계를 향한 희망적인 분위기로 끝을 맺는다.

앞서 밝힌 대로 이 곡은 미뇽의 비밀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단순한 선율과 화성진행, 선율과 중복되는 반주형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성악선율과의 완전한 일치, 그리고 chord의 울림을 배가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가사의 내용(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차 비밀을 지켜야 하는 안타까움)과 리듬 형태로 볼 때 조금도 서두르는 느낌이 나서는 안된다.

11마디의 cresc.와 f는 운명(schicksal)에 대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으며, 14마디부터 시작되는 B부분은 희망적인 내용에 따라 C장조로 변형되었으며 선율적이다. (악보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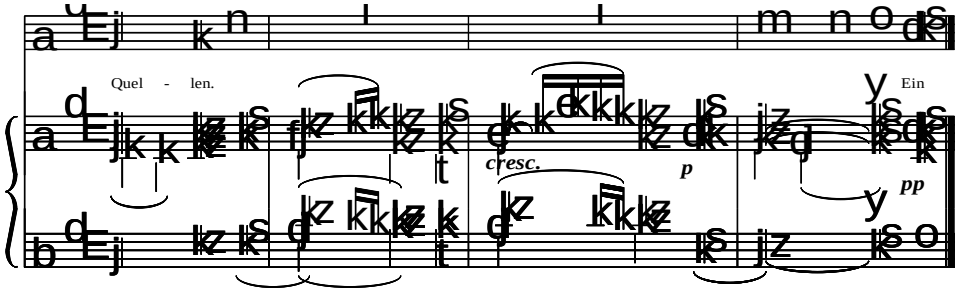
<악보 9> 10마디에서 17마디





23~25마디의 간주는 decresc.와 cresc., 다시 p로의 짧은 악상변환을 통해서 갈등하며 괴로워 하는 미뇽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부분으로 최대한의 표현력을 발휘한다.(악보 10)

<악보 10> 22마디에서 25마디



④ So laßt mich Scheinen

<표 4 > 형식 표

형 식	A		A′	
	a	b	a	b′
가 사	1연	2연	3연	4연
마 디	1~14	15~24	25~34	35~47
조 성	B→F♯→B	B→D→B	B	B→d→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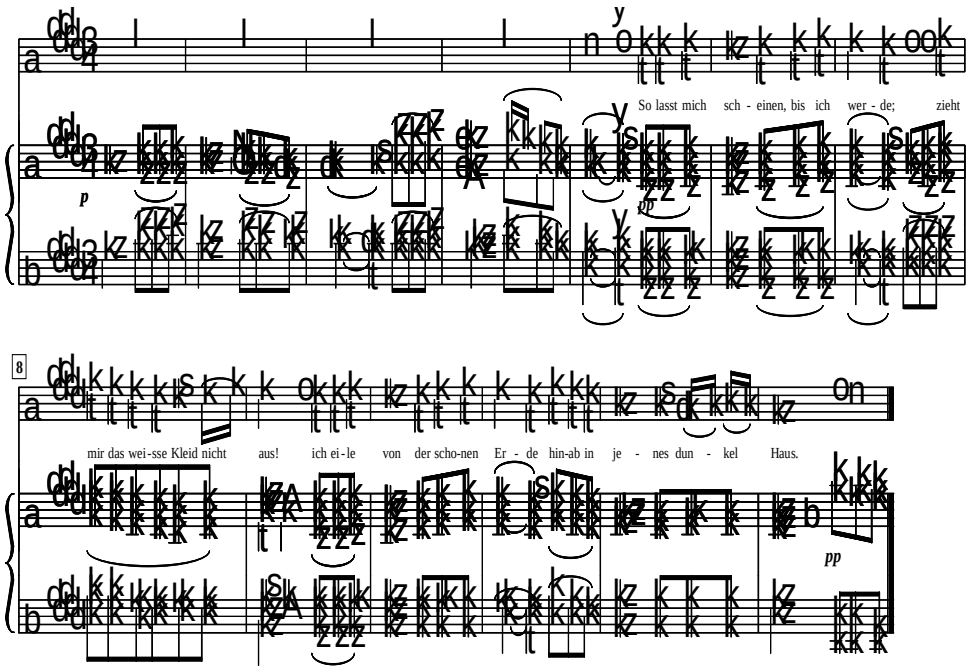
이 곡은 크게 A A′ 형식의 통절가곡이다.

곡 전체의 흐름은 속삭이는 듯한 좁은 음역이며 변화 없이 자연스러운 전조로 A에서 A′부분이 약간 변형된 형식으로 진행된다.

선율은 A의 a에서는 대체로 단조롭고 순차적인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용히 부탁하고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b부분은 a와는 다르게 선율이 조금씩 도약하고 있어 내세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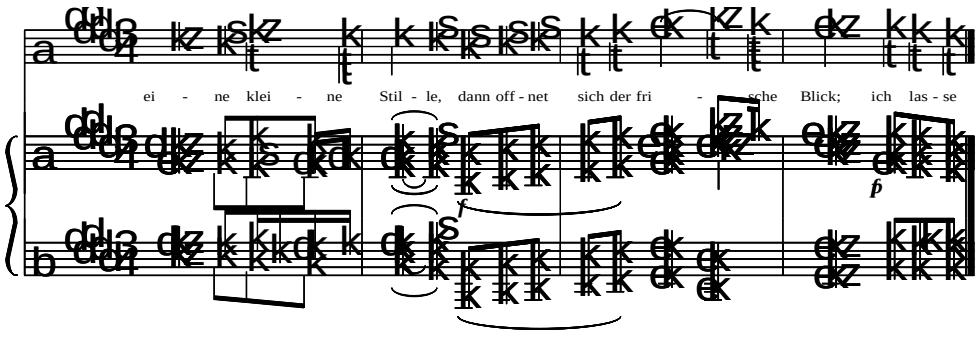
반주부분은 앞의 곡과 마찬가지로 전주에서 미리 주제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래가 시작되면 반주부분이 성악선율에 종속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옥타브를 중복하여 사용하여 순차진행한다. 오른손은 성악선율을 따라가며 왼손은 F♯음과 B음이 pedal point로 사용되고 있다. (악보 11)

<악보 11> 1마디에서 13마디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반주이며 17,18마디가 unison형식을 취하면서 성악부에서는 돈꾸밈음이 등장하고 반주부에서는 ＜ ＞이 나타나 frische(상쾌한)를 강조하면서 이 곡의 climax를 표현하고 있다.(악보 12)

<악보 12> 16마디에서 19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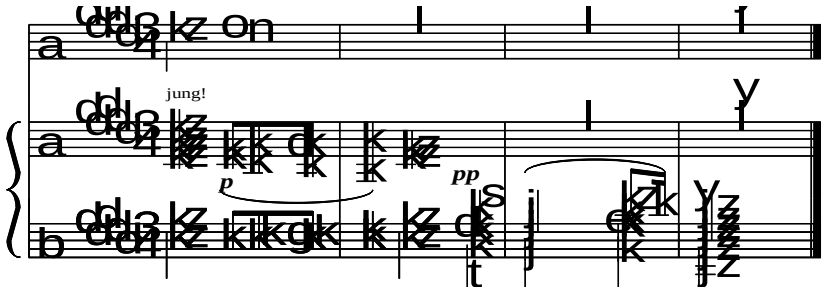
f와 p로의 악상의 전환이 빈번하며 옥타브로 이어지는 선율의 상성을 살리면서 부드럽게 이어 친다.

♪♪♪／♩. ♪♪♪ ／♩ ♪♪♪♪ 리듬이 반복되면서 ♩.와 ♩에서 중요한 가사가 일치되므로 ♩.와 ♩에 강세를 주어 나머지 리듬이 따라오는 느낌으로 연주한다.

7마디에서와 같이 노래부분이 잠시 끊어질 때에는 성악가의 호흡을 끌고 가듯 연주한다.(악보 11)

후주는 노래의 주요 리듬과 악상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노래의 내용을 정리하며 그림자와 같은 느낌으로 연주한다.(악보 13)

<악보 13> 44마디에서 47마디



2) 슈만

① Kennst du das Land

<표 5> 형식 표

형 식	A	B	C
마 디	1~27	28~53	54~81
가 사	1연과 후렴구	2연과 후렴구	3연과 후렴구
조 성	g→B♭→g→C→g→C→g	g→B♭→g→C→g→C→g	g→B♭→g→C→g→C→g

이 곡은 3/8 박자의 곡으로 A B C의 유절형식이다.

슈베르트의 곡이 후렴구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비해 선행절과 하나의 부분으로 연결시키며 단순한 구조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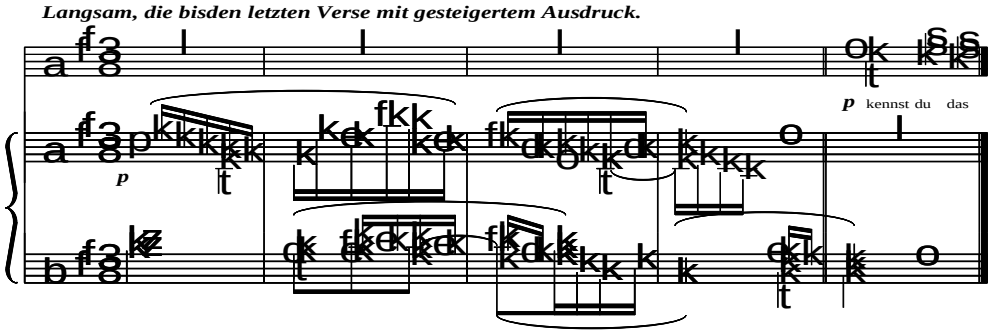
슈베르트의 곡보다 짜임새가 풍부하며 피아니스틱하다.

특히 네마디의 전주는 모토테마(motto theme)[26]를 갖는 독자적인 선율로 멜로디와 별다른 관련 없이 주요 연결부분에서 반복 사용되면서 성악선율과

26) Motto theme : 주제로서의 확장이나 발전기능이 배제된 모티브로서 악구의 도입부나 연결구에 주로 사용되는 모티브를 의미한다.

주고받는듯한 느낌을 준다.(악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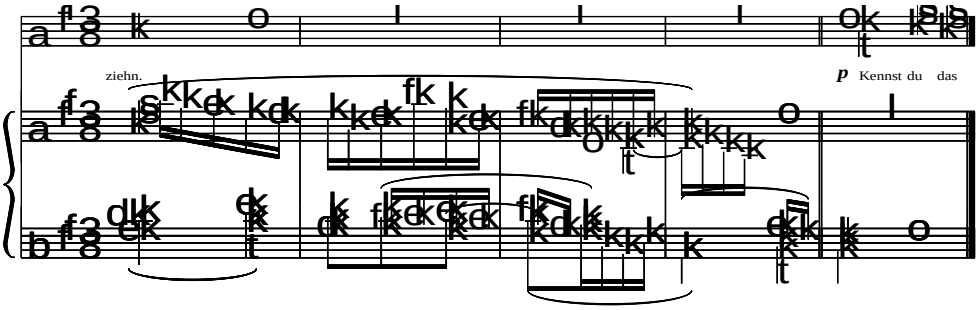
<악보 14> 1마디에서 5마디



이 부분은 시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리고 부드럽게 시작되어 길게 이어지는 legato 선율과, 또 다른 3개의 legato line, 그리고 계속 변화되는 화성으로서, 고향의 부드러운 바람, 아름다운 경치와 이 시에 담긴 미뇽의 많은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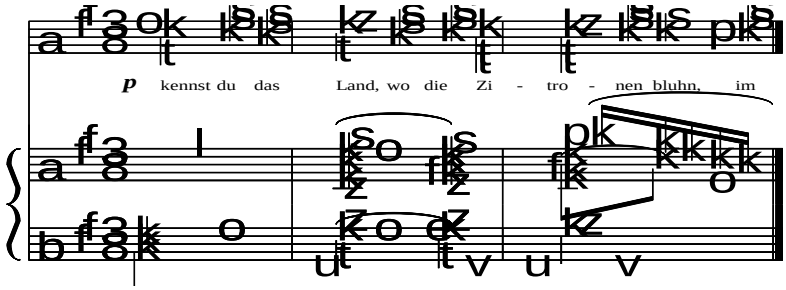
모토테마는 마디1~4와 마디27~31, 그리고 마디53~57에서 반복되는데, 화성적 변화가 있는 부분은 마디 53~57뿐이다. 마디79~81(악보 19 참조)에서는 단순한 형태로 요약되어 후주로 사용되었다.(악보 15)

<악보 15> 53마디에서 57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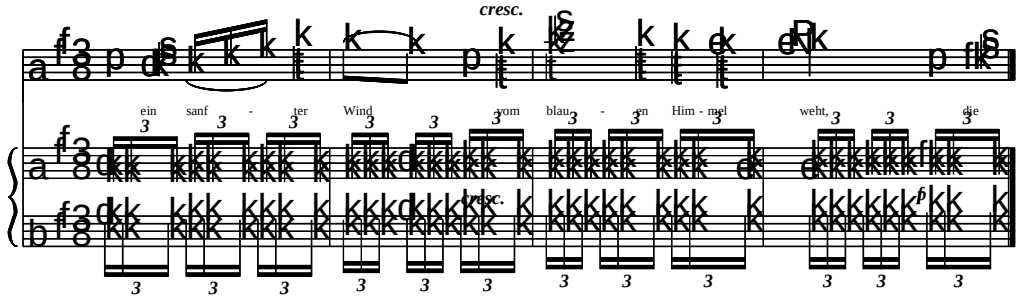
1행에서의 물음은 recitative적이며 이것은 슈베르트보다 더욱 이야기적인 것으로 반주부분에서 울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악보 16)

<악보 16> 5마디에서 7마디



10마디부터 시작되는 3연음부는 미뇽이 고향의 바람과 하늘을 표현하는 부분으로 가볍게 치며, 부풀어 오르는 melody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한다. (악보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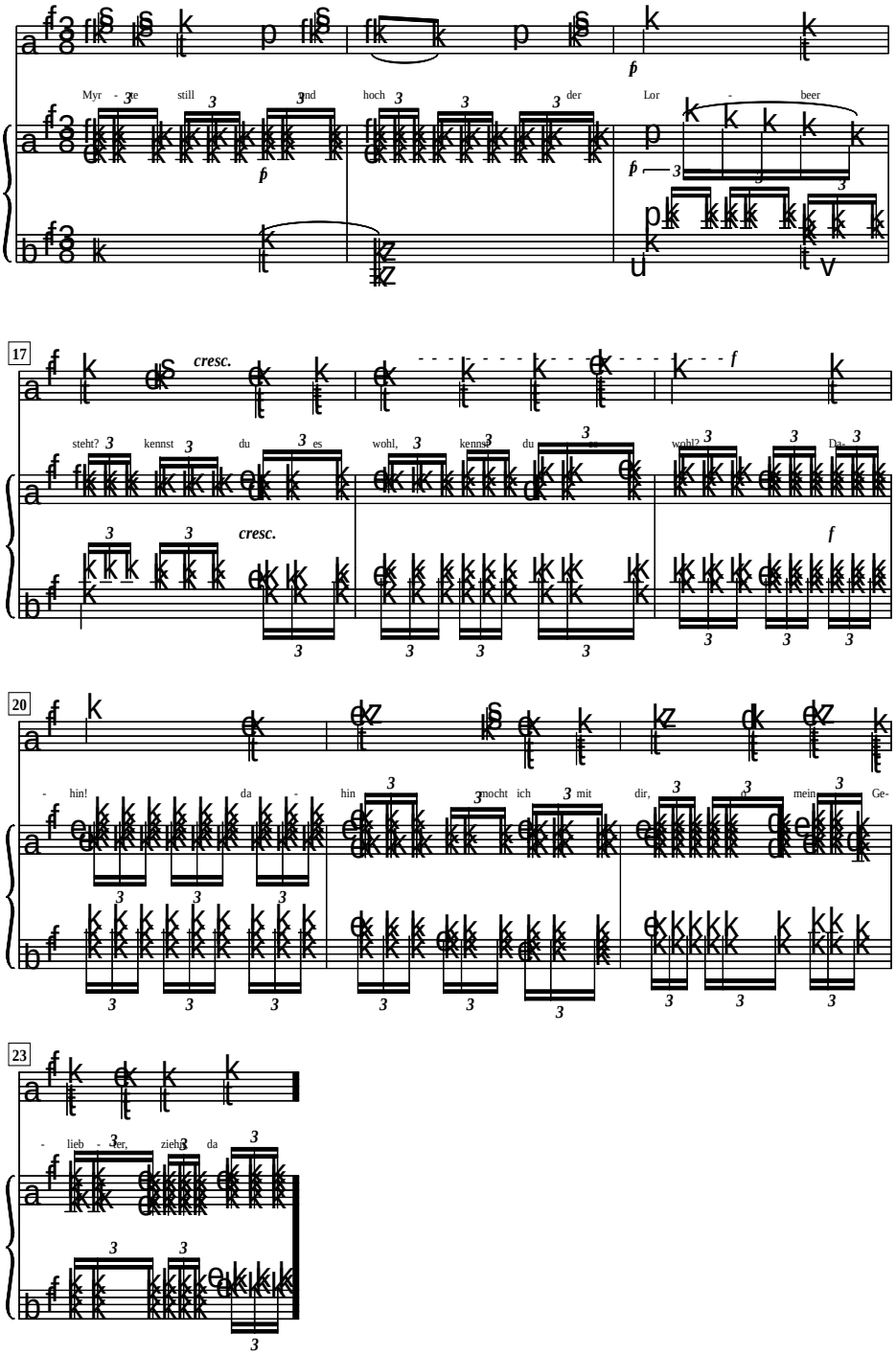
<악보 17> 10마디에서 13마디



dahin을 향해 점점 절정에 이르는데, 슈베르트가 같은 가사를 반복하여 절정을 강조하였다면 슈만은 반주부에 두터운 화성과 성악선율의 4도 상행도약음정을 두 번씩 써서 강조한 것이다.[27](악보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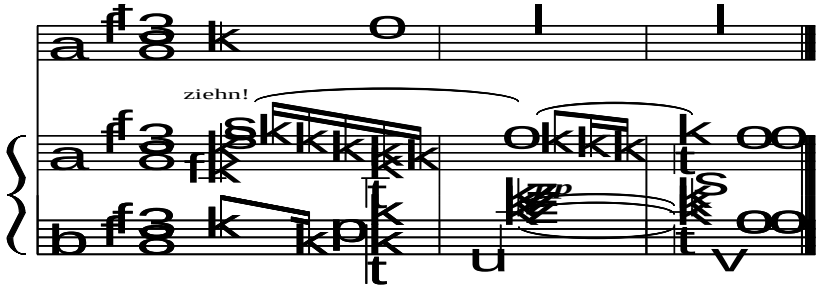
27) 정복주, 괴테의 소설「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중 미뇽의 시를 가사로 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 가곡,(음악연구 19집, 1999)p. 13

<악보 18> 14마디에서 23마디



후주는 곡이 끝난 느낌을 주는 chord 이후에 노래선율의 시작부분을 넣음으로써 미뇽의 고향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를 표현해야하는 반주자의 역할이 중요하다.(악보 19)

<악보 19> 79마디에서 81마디



② Nur wer die Sehnsucht kennt

<표 6 > 형식 표

형 식	A		A′		후 주
	a	b	a′	b′	
마 디	1~17		18~37		38~41
가 사	1~10행		11~12행,1~8행,11~12행		
조 성	g→B♭→C		g→B♭→E		g

이 곡은 3/4박자의 곡으로 A A′41마디의 통절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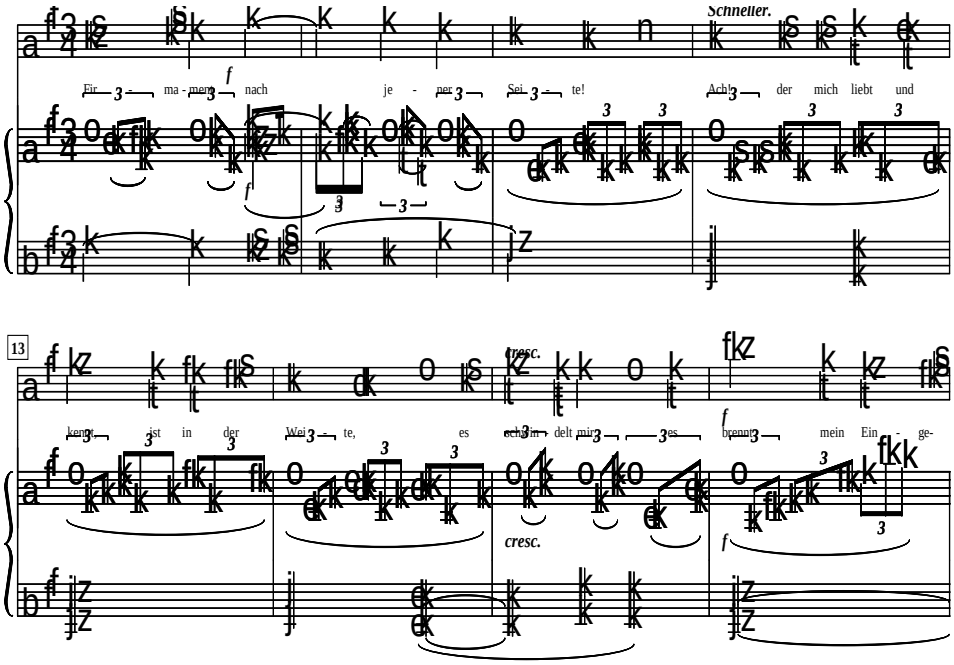
슈베르트가 순차적 전음계적인 진행을 사용한 반면 슈만은 완전4도의 상승, 단6도 상승, 완전 8도 상승 등의 음정진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어와 리듬을 정확하게 일치 시켰던 슈베르트와 달리 중요한 단어를 약박에 배치함으로써 역 강조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었다.[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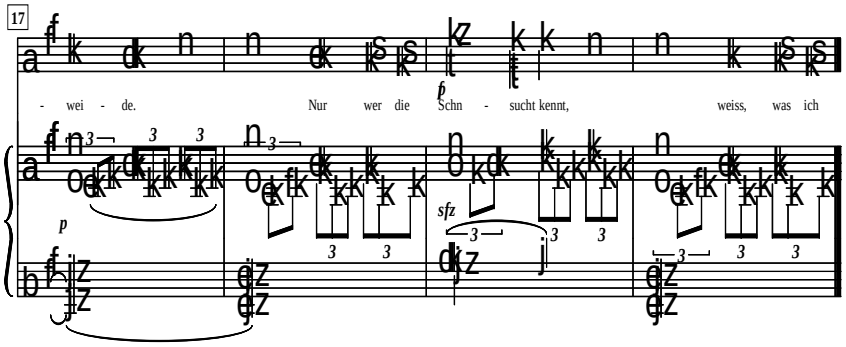
반주부의 거의 모든 마디에 임시표를 붙여 끊임없는 전조를 함으로써 시어 하나하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반주부에서 독창부의 선율이 길게 혹은 짧게 항상 나타나도록 하여 또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서 독창부와 2중주의 효과를 내었다.

p로 시작된 노래는 점차 cresc.하여 f까지 이르렀다가 마디12부터 점점 빠르게 하여 마디16의 A♭(es brennt)를 정점으로 climax를 이룬다.(악보 20)

<악보 20> 9마디에서 20마디



28) 강여정, 괴테의 서정시 "미뇽의 노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p.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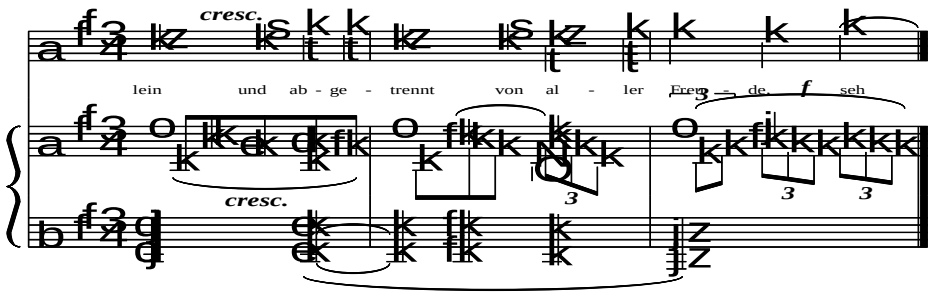


슈베르트가 ‘Ach! der mich liebt und kennt, ist in der weite 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는 이, 먼 곳에 있네’를 한숨 쉬 듯 느리게 표현한 반면(악보 6참조), 슈만은 이 부분에 Schneller(빠르게)를 붙임으로 빠르게 단숨에 이야기하듯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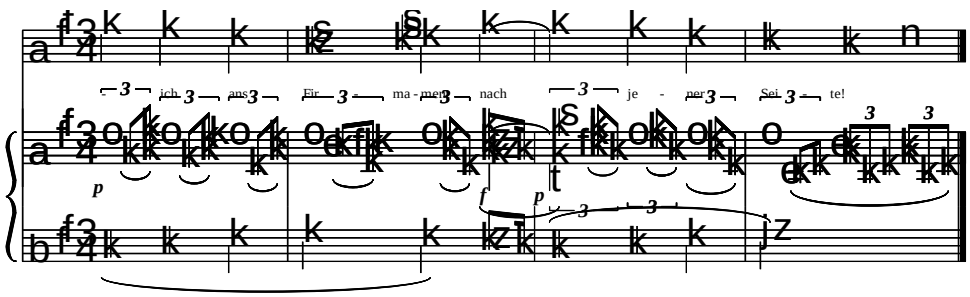
5~7마디에 나오는 왼손 반음계진행은 <Allein und abgetrennt Von aller Freude 홀로 모든 기쁨에서 떠나> 를 표현한 것이며 (악보 21), 16마디의 상승형 아르페지오는 climax를 표현하기위해 이부분에만 나타나는 반주형태로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악보 20 참조)

8~11마디의 왼손에 나타나는 선율은 독창부의 선율과 반진행하면서 2중주의 효과가 나는 부분으로 독창자와 호흡을 잘 맞추어 노래하듯 한다.(악보 22)

<악보 21> 5마디에서 7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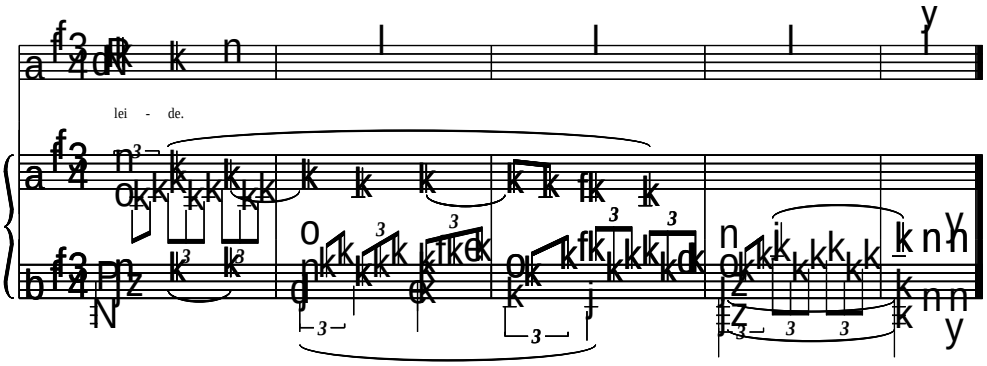


<악보 22> 8마디에서 11마디



후주는 슈만가곡의 일반적 특징을 보여주듯 새로운 melody로 노래를 대신 마쳐주는 형식이므로 melody를 뚜렷하게 하면서 곡 전체의 느낌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악보 23)

<악보 23> 37마디에서 41마디



빠르기말은 Langsam, sehr gehalten으로서 천천히, 매우 의연하게 연주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③ Heiß mich nicht reden

<표 7> 형식 표

형 식	A	B	C	Coda
마 디	1~16	17~31	32~54	55~62
가 사	1연	2연	3연	1연 1행 3연 3~4행
조 성	c→A♭→D♭→A♭→c	C→G→C→D→a	a→E→a→F	f→C

이 곡은 A B C 세 부분과 Coda로 이루어진 통작 형식이다. 슈베르트가 마지막 연, 마지막 행을 반복한 것과는 달리 슈만은 A부분에서는 제 1연의 1행을 반복하고 Coda에서는 제 1연의 1행, 제 3연의 3,4행을 연결하여 반복한 후 끝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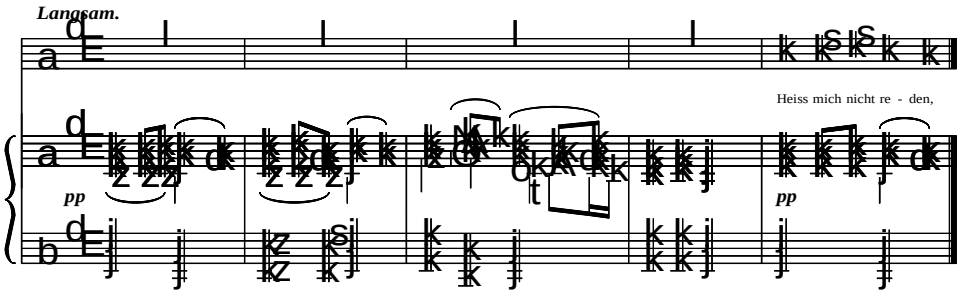
시의 원형을 지키지 않고 음악의 흐름을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이며 나름대로 자신의 문학적 해석을 첨가하였다.[29]

슈베르트가 전주부분을 엄숙한 리듬을 사용하여 강조하였다면(악보 24), 슈만은 수직적 화성에 악센트를 주어 강조했으며(악보 25), 슈베르트가 조용하고 단순한 리듬으로 비밀스러움을 표현한 반면 Mit freiem leidenschaftlichen Vortrag(열정적이고 자유롭게 연주)라는 말이 보여주듯, 슈만은 움직임이 많은 리듬과 강렬한 어조로 오페라를 연상케 하는 드라마틱한 구성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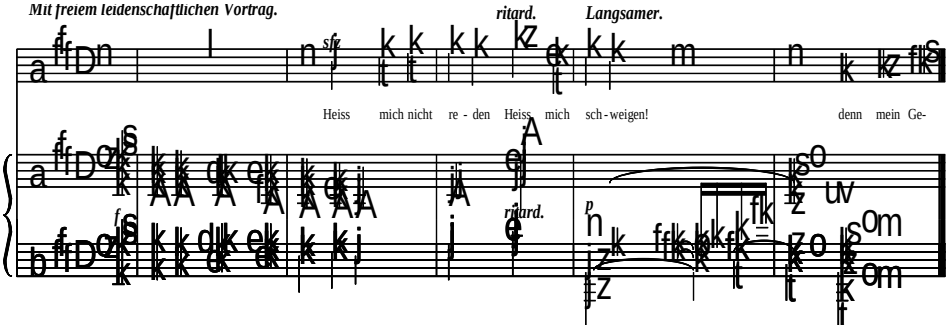
전주를 포함한 첫 4마디는 호흡을 실어서 강렬하게 하고 5마디는 이와 대비될 수 있도록 하며 극적인 리듬과 악상을 살려준다.(악보 25)

29) 정복주, 괴테의 소설「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중 미뇽의 시를 가사로 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 가곡, (음악연구 19집) p. 19

<악보 24> 슈베르트 Heiß mich nicht reden 전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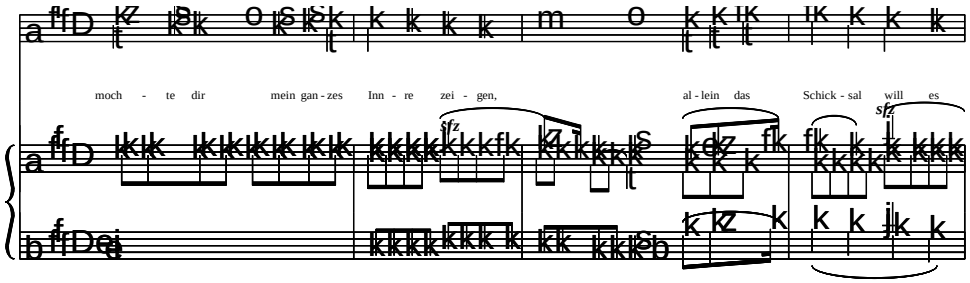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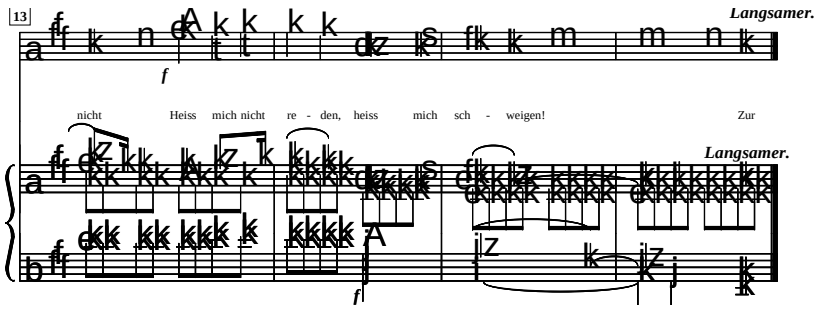
<악보 25> 1마디에서 6마디



10~12마디에서는 노래선율은 하행하고 있으나 반주부분에는 sf.가 나타남으로써 반주가 노래를 리드해 나가는 부분이며, 15~16마디에서는 성악가가 Langsamer의 분위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격정적이던 분위기가 충분히 가라앉도록 한다.(악보 26)

<악보 26> 9마디에서 16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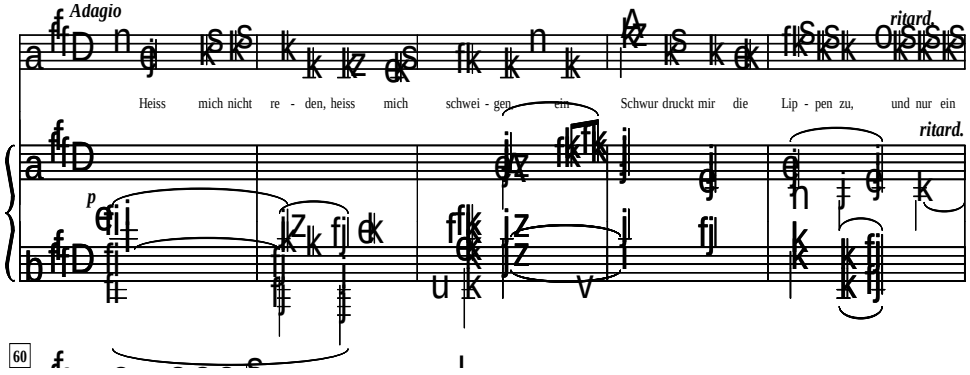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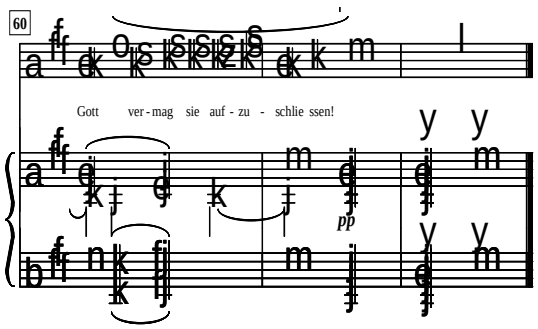
반주의 거의 모든 부분에 melody가 나오면서 성악가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며 때로는 노래선율을 리드해 나가기 때문에 반주부분의 melody를 내성과 분리시켜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마지막 Adagio는 슈만이 제 1연의 1행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말하라 하지 마세요, 침묵하라고 하세요>와 제 3연의 3,4행

<ein Schwur drückt mir die Lippen zu, Und nur ein Gott vermag sie aufzuschließen 맹세 때문에 제 입술을 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답니다>를 강조한 부분으로 이에 따라 후주로 쓰인 chord는 긴장감을 가지고 비밀스러운 느낌으로 충분한 울림을 갖도록 한다. (악보 27)

<악보 27> 55마디에서 62 마디





④ So laßt mich Scheinen

<표 8> 형식 표

형 식	A	B	C	A′
마 디	1~12	12~21	21~33	34~53
가 사	1연	2연	3연	4연
조 성	G→a→G	g→G	G→a→c→G	G→C→G

이 곡은 ABCA′형식의 곡으로 중심조성은 G major이나 전체적으로 조성이 모호하며 마디별로 전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미뇽의 혼란한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독특한 화성진행 없이 대부분 펼친 화음 형태의 반주이며 죽음 앞에 초월적이며 다음 생애의 희망을 나타내는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리듬도 단순한 형태를 사용하였다.

원시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곡의 마지막 부분만 반복하였다. 일정한 리듬과 선율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에 의해 펼쳐지는 것이 이 곡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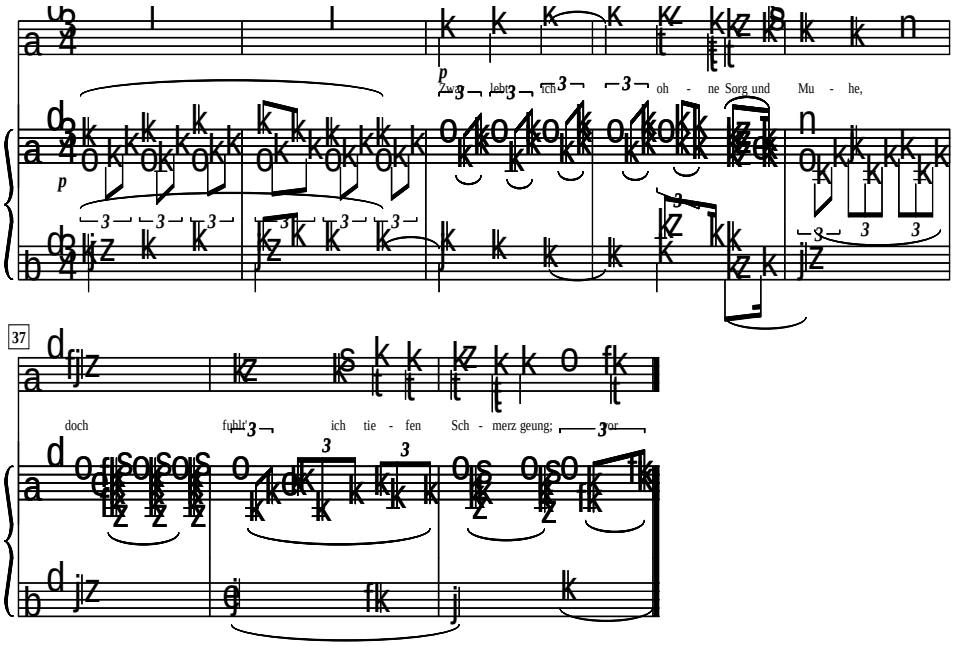
셈여림이 대조되는 곳이 많은데 천국에 대한 내용을 f로 표현하여 미뇽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주는 전체적으로 흐르는 듯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오른손은 3연음부가 지속되어 성악성부와 병행되지 않고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왼손의 melody가 성악성부와 2중주의 느낌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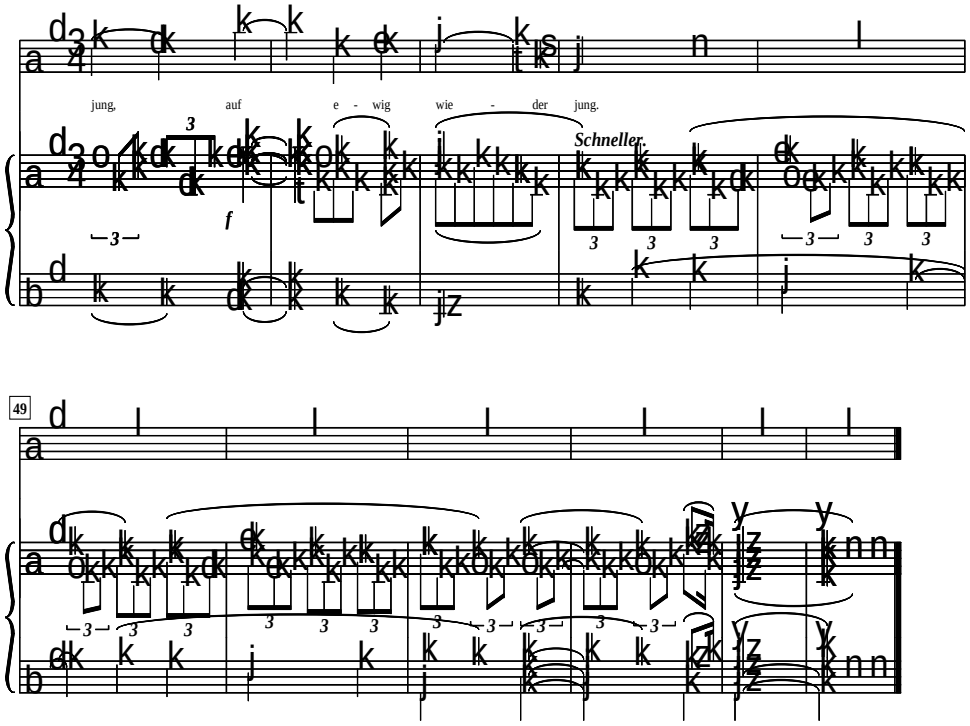
제 37마디에서는 쉴 틈 없이 이어지던 3연음부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며 slur staccato가 등장하는데 이는 미뇽이 자신의 과거의 고통을 고백하는 부분인 제 3연의 1행＜Zwar lebt ich ohne Sorg und Mühe 비록 나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아왔지만>과 2행 ＜Doch fühlt ich tiefen Schmerz genung 깊은 아픔도 충분히 느꼈답니다＞가 이어지는 부분으로 잠시 호흡을 고르며 흐느끼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악보 28)

<악보 28> 32마디에서 39마디



후주는 Schneller로, 3연음부가 사라지면서 rit.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45, 46마디와 대조를 이루며 슈만다운 아름다운 melody로 곡의 내용과 분위기를 정리하고 있다.(악보 29)

<악보 29> 44마디에서 54마디



Ⅲ. 결 론

지금까지 괴테의 네 편의 시에 곡을 붙인 슈베르트와 슈만의 미뇽의 노래를 형식과 연주법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 해본 결과 각 작곡가별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슈베르트는 시의 흐름과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을 시도하며 규칙적인 프레이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단조로운 순차진행과 서정적이고 단순한 선율로서 선율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회화적 표현을 위해서 장식음이나 관계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비교적 온음계 화성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미뇽의 어리고 단순한 성격을 나타내려 했다.

특이할만한 것은 이곡이 슈베르트의 초기 작품인 탓인지 그가 갖는 반주의 특성 즉, 연가곡에서 나타나는 분위기의 묘사라든가 「마왕」에서의 말발굽 소리를 나타내는 반주, 또는 「물레 잣는 그레첸」에서의 실을 잣는 듯한 반주의 형태 등 그의 특징적인 모습을 찾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고전주의 음악보다는 자유로운 느낌을 갖고 있으며, 고전주의적 형식에 낭만주의적 특성을 융합시키려한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슈만은 슈베르트의 선율적 아름다움에 후기 낭만주의의 색채를 더해 낭만주의적 성격이 심화 되었다. 즉, 멜로디가 서정적이나 반음계 화성이 많이 나타나고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서는 도약진행이나 빈번한 전조가 많이 일어난다. 음악의 짜임새 또한 슈베르트보다 많이 복잡해지고 확대 되었으며, 반주가 성악선율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독립적이며 성악성부와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가사의 느낌에 따라 다양한 패턴으로 표현되었다. 그의 전반적인 가곡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마찬가지로 전주, 간주, 후주의 사용에 비중을 두었으며, 시구

를 첨가하거나 삭제하고 전체적으로 시를 반복하기도 하면서 슈만 자신의 시에 대한 해석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한 연주법에 있어서 훌륭한 반주를 하기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연습해 나가야 하는가 연습방법상의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려 한다.

우선 연습을 할 때는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좋은 울림을 가진 소리를 만들어 협연자와 조화가 잘 이루어진, 배합된 소리를 만들 수 있다.

또 직접 자신이 반주를 함과 동시에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을 하면 매우 효과 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을 빨리 파악 할 수 있고 연주 시 성악가의 호흡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게 된다.

테크닉적으로 반주자가 특히 노력할 부분은 relax와 legato이다.

relax는 울림 있는 소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같은 음 연타하기나 어깨의 힘을 빼고 팔의 무게 이용하기 등, 다양한 연습방법을 시도할 수 있고, legato는 손가락과 손목의 사용 방법이나 호흡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완성될 수 있는 부분으로, relax와 더불어 반주자가 꼭 갖추어야 할 부분이다.

협연자와의 관계에 있어 반주자를 여러 가지에 비유할 수 있겠지만, 반주자는 협연자를 완성시켜주는 옷과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주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의 음악이 빛을 발할 수도 초라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좋은 반주자가 되려면 우선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할 것이며, 피아노를 통하여서 원하는 소리를 다양하게 또 테크니컬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만 좋은 피아니스트, 좋은 반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피아니스트로서의 부단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일반서적 〉

강두석. 1977.「괴테의 생애와 사상」, 미문출판사.

김선양. 1978.「교육사」, 형설출판사.

R. 프리덴탈. 1985.「괴테의 생애와 시대」, 서울:평민사.

피종호. 1999.「아름다운 독일시와 가곡」, 서울:자작나무.

괴테, 요한 볼프강. 1996.「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Ⅰ」, 안삼환 역. 민음사.

괴테, 요한 볼프강. 1996.「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Ⅱ」, 안삼환 역. 민음사.

로맹롤랑, 2000.「괴테와 베토벤」. 박영구 역 서울 : 웅진닷컴.

한국 괴테 협회, 1983.「괴테연구」. 문학과 지성사.

안진태, 1995.「괴테문학의 여성미」. 경기 : 열린 책들.

정복주, 1999.「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중 미뇽의 시를 가사로 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 가곡」. 음악연구 19집.

Finck, Henry Theophilus, 「Songs and Song-Writers」. 국민음악연구회 역.

〈 학위논문 〉

이은선, 2001.「미뇽의 노래」연구. 음악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강여정, 2004. 괴테의 서정시 〃미뇽의 노래〃에 관한 연구. 음악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나유창, 1993. GOETHE의 作品 <Wilhelm Meister> 中의 詩 - Gesänge des Harfners Ⅰ. Ⅱ. Ⅲ -을 Text로 한 F. Schubert, R. Schumann, H. Wolf의 哥曲 比較硏究. 음악석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대학원

구자은, 2003. 슈만의 연가곡「여인의 사랑과 생애」Op.42 분석 · 연구. 음악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수연, 1983. Goethe의 詩 ″Nur wer die Sehnsucht kennt″를 歌詞로한 獨逸 歌曲의 比較와 分析. 음악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지오, 2005. 19c 낭만주의 예술가곡 J.W.Goethe의 시 ″Mignon″에 의한 <미뇽의 노래>비교연구. 음악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홍선호, 1977. F.Schubert의 연가곡 작품25 ″Die Schöne Müllerin″에 관한 연구. 음악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오수, 2004. Goethe의 시 ″Nur wer die Sehnsucht kennt″를 가사로 한 가곡의 비교·분석 연구. 음악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사전 〉

심성태.「음악용어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2.

사전 편찬 위원회.「음악인명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7.

〈 악보 〉

SCHUBERT 200 SONGS 1, 2 태림출판사

SCHUMANN 85 SONGS, INTERNATIONAL MUSIC COMPANY No. 1487

〈 음반 〉

Schubert Lieder Sop. Gundula Janowitz

piano. Irwin Gage

Deutsche Grammophon. 1978

(Original-image bit-processing)

Schumann Frauenliebe und-leben op.42

Lieder nach Rückert ·Möricke·Goethe

Sop. Arleen Augér

piano. Walter Olbertz

Berlin Classics. 1994.

ABSTRACT

A Study on Comparison of Two Different Versions of 「Lied der Mignon」 by F.Schubert and F.Schumann and on Accompanying Techniques

Sung, I Jin
Department of Accompany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Lied der Mignon」 is made of four pieces of poems sung by Mignon who appears in Goethe's novel 「Wilhelm Meisters Lehrjahre」. The four poems are 1.＜Kennst du das Land＞, 2.＜Nur wer die Sehnsucht Kennt＞, 3.＜Heiß mich nicht reden＞, 4. ＜So lasst mich Scheinen＞ and they were used to compose by many composers including Schubert and Schumann.

This thesis compares two different versions of 「Lied der Mignon」 by Schubert in early Romanticism which established a typical model for the German Art Songs and by Schumann who was influenced by Schubert and reached his zenith of Romanticism.

One of the important criteria that can distinguish a vocal music and an instrumental music is that the former has the lyric. Even though the lyrics are identical, musical expression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yrics selected. Considering this, it is meaningful to study by comparing different songs composed from the same poem. The poems of Goethe especially inspired many composers. This thesis discovers its correlation how his poem inspired the composers by studying his life and his musical viewpoint.

For this study this thesis explains regarding the outline and the story background of the novel 「Wilhelm Meisters Lehrjahre」 which gave the background of the poem. And also, it explains where this novel is placed in the trend of literature and how it influenced the society.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of Mignon in the novel provides a chance to understand the poem better and to learn diverse ways of musical expression.

For musical area, this thesis is focu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ch composer's songs. And it analyzes the form, the harmony, the melody, the rhythm, the theme and the technique of accompaniment which were shown in each piece and also explains what should be cautious about when playing the music so that it can be helpful in a real performance.

부 록

1) 1840년에 작곡된 슈만의 가곡

Op.24	Liederkreis (Heine, 1797-1856)
Op.25	Myrten
Op.27	Lieder und Gesänge 제1집
Op.30	Zimmermann
Op.31	3개의 시 (Geibel, 1815-1884)
Op.35	3개의 노래 (Chamisso,1781-1838)
	12개의 시 (Körner, 1756-1831)
Op.36	6개의 시 (Reinick, 1805-1852)
Op.37	Liebesfrühling (Rückert, 1788-1866)
Op.39	Liederkreis (Eichendorff,)
Op.40	5개의 노래
Op.42	Frauenliebe und leben (Chamisso)
Op.45	로맨스와 발라드 제1집
Op.48	Dichterliebe (Heine)
Op.49	로맨스와 발라드 제2집
Op.51	Lieder und Gesänge 제2집
Op.53	로맨스와 발라드 제3집
Op.57	Belsatzar (Heine)

2) 미뇽의 노래에 붙인 각 작곡가의 작품 제목

	Kennst du das Land	Nur wer die Sehnsucht Kennt	Heiß mich nicht reden	So laßt mich Sehnsucht
슈베르트	Mignon, D. 321	Lied der Mignon, D.877 No.4	Lied der Mignon, D.877 No.2	Lied der Mignon, D.877 No.3
슈만	Kennst du das Land, Op.98a No. 1	Nur wer die Sehnsucht Kennt, Op. 98a No.3	Heiß mich nicht reden, Op.98a No.5	So laßt mich Sehnsucht Op.98a No.9